2018

퀸즈장로교회

전교인 여름수련회

7월 2일(월) ~ 7월 4일(수)

강사 : **백 정 우 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SHERATON PARSIPPANY HOTEL, NJ

여주 한인 에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월간 아가페 제411호 2018년 6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4347 FAX (718) 886-5555

2018년 표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퀸즈장로교회

▶ 6월 성령의 달

KAPCQ CHRISTIAN MAGAZINE

Agape

아가페 愛加倍 · Агапэ

中文堂
중국어 예배부

在主里我们成为一家人
주님 안에 한가족

通过诗班的联谊活动成为一体
찬양축제로 하나가 되어

为了完成使命的挑战
사명의 완성을 위한 도전

День Пятидесятницы
성령의 달 특집

Деяния 2:1-13
사도행전—오순절

QPEM DEACONS AND LEADERS RETREAT 2018
General Formation and Discipleship

제 4회 어스 오픈 골프대회
자연 속에서 골프로 신앙을 배우다

성전건축과 조국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효도관광
아버지! 어머니!

2018. 6

www.kapcq.org

만남

만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소중한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로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제 생애에 퀸즈장로교회와의 만남이 저에게는 참 소중한 것인데
교우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단(異端)이나 그릇된 사상(思想)을 만나 수십 년을 안타깝게 보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12일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만나게 된다면 소중한 만남이 될 때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권 등에 좋은
변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이 될 때 그 모든 나라에 끼칠
피해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과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의 만남을 위해서도 마땅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목사 김성국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Meeting

There are two kinds of meetings.
One is a precious meeting.
Meeting Jesus made us people who have eternal life.
For me personally, meeting KAPCQ was a precious meeting, and I believe it is the same for you as well.

There is also a wrongful meeting.
There are many who face hard times because they encountered the wrong person.
By meeting wrong theology or wrong ideology, there are people who suffer for several decades.

If all goes according to plan, this June 12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rump, and the leader of North Korea, Jong-Un Kim, will have a summit.
If it is a precious meeting, there will be many positive changes to nearby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China, and Russia.
However, if it becomes a wrongful meeting, we could not even begin to describe all the negative effects and difficulties that those nations would face.

Christians must pray for the place where they live and the leaders of this age.
We must pray hard for the summit as well.

遇见

遇见可以分为两种。
有一种是非常重要的遇见，
就是遇见主耶稣，让我们成为得到永生的人。
对于我来说，这一生中能够遇见皇后区长老教会就是一种特别重要的遇见。
相信各位教友们也是如此感想的吧！

还有一种是不好的遇见。
就是遇见莫名其妙的人，并让人产生困惑。
遇见异端或相似思想，就这样不明不白地度过数十年栽大有人在，实在是让人感到可惜。

如按计划进行，这个月12号，
美国总统川普将与北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会面，
重要的遇见实现时，美国，韩国，中国，俄罗斯等国之间相信会有很多新的变化。
当不好的遇见实现时，相关联的所有国家将会受到不好的影响或面临很多困难。

作为基督徒应该为自己所生活的地区和执政掌权的祷告，
让我们也为到这些重要人物的遇见虔诚地祷告吧！

Встреча

Есть два вида встреч
Одни очень драгоценны для нас
Встреча с Иисусом, сделала нас обладателями вечной жизни

Встреча с КАПЦК стала очень драгоценной для меня
Думаю для вас также

Есть встречи не приятные
Когда мы встерчаемся со “странными людьми” или с нехорошими
Есть и такие, кто встретил еретиков и вот уже десятки лет, живут во лжи
Если верить новостям, то как мы и думаем, 12 числа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встретится с лидер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и Ким Чонг Ыном
Если это будет хорошая встреча, то будут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для США, Кореи, Китая и России
Если эта встреча будет плохой, то для всех стран будут серьезные проблемы

Фристиане должны молиться за страны в которых живут и за их лидеров
И конечно же мы должны молиться за их встречу.

아가페

제411호
2018.6

2 **신앙시론** | 만남 — 김성국 목사
5 성전건축과 조국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 편집부
6 **송이꿀 같은 말씀** | 부모님을 기쁘시게 — 편집부
8 2018년 5월 | **담임목사 설교요약** — 편집부
9 성령의 달 특집 – 사도행전 오순절 — 송요한 목사
13 Russian Ministry | The spiritual unity in Jesus Christ — Elizaveta Son
14 중국어 예배부 제 4기 새가족 졸업식 — Cui Qing Bin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 Shen Ling Ling
神所喜悦的事 — Jiang Ji Qiong
Blessed of God
16 **중국어 예배부 찬양대** | 사명의 완성을 위한 도전 — **周永艳 执事**
| 찬양축제로 하나가 되어 — **金三喜 执事**
19 VBS 여름성경학교 | 아하! 예수님 — 이명옥 전도사
20 QPEM DEACONS AND LEADERS RETREAT 2018 — Elder Symong Choi
General Formation and Discipleship
21 전도폭발위원회 세미나 참가기 — 최원일 장로
문턱은 낮추고 훈련은 더욱 가깝게. 전도폭발훈련의 새 방향, " Just EE!"
22 2018 효도관광 | 아버지! 어머니! — 손정호 집사
24 한마음 축제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을 — 편집부
25 2018 선교바자 |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 조성순 집사
28 가정의 달 연합예배-행복한 가정,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 최성은 집사
31 특별찬양위원회 선교후원 야외음악회 | 담을 넘어 지역사회로 — 편집부
32 교육부- 유아부 |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 차동미 권사
간증 | 말씀과 믿음으로 선포하며 키워요 — 이명남 집사
|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축복과 감사 — 구경민 집사
34 교육부- 특별활동위원회 — 편집부
헌신예배스케치 | 노래와 춤과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 — 이정혜 권사
12회 아이노스 정기연주회와 양로원방문
35 서예전 관람기 | 예수의 향을 품은 작품 — 김수진 집사
목판화 전시회 | 아버지의 마음 — 편집부
36 퀸즈장로교회 한국학교 |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우리 가족, — 김홍덕권사
우리 한국학교' | 글짓기 | 그림 — 박룡길교우 김진웅 홍영선 박리나
이예나 고은새 최태준
38 제4회 어스 오픈 골프대회 | 자연 속에서 골프로 신앙을 배우다 — 편집부
39 God's Will | 30 대 남자 Outing 선물, 받는 것인가 주는 것인가? — 박상용 집사
40 생명 현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생명의 법칙 — 이승조 집사
42 **십자말 성경퀴즈** — 김기호 장로
43 2018 년 4월 새가족 안내 — 새가족부
새가족 이야기| 더 가까이 만나요 — 안수혜 청년

2018여름
SAT Class 안내

본교회 9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SAT Class 가 있습니다. 기간은7/9 (월) – 7/19 (목) 요일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 총 8번의 수업입니다.

처음 SAT를 준비하는 학생과 2019년 대학입학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기초반과 실전반으로 나누어서 수업합니다.

2주 단기수업에 맞도록 핵심정리를 하여 집중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재가 준비됩니다.

또한 수업 후에는 교육부전도사님과 학생과의 1:1 멘토링으로 신앙과 진학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0명 정원으로 선착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Director 김도완 347-210-1245

표지설명: 5/26(토)
특별찬양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교후원 야외음악회'에 참여한 주향단원들의 한국전통무용 - 부채춤공연

배워봅시다

오랫만이예요 ORETTMANIYEO
LONG TIME NO SEE LONGTAIM NO SI / 롱타임 노씨
好久不见了 HAO JIU BU JIAN LE / 호우져우 부짼러
ДАВНО НЕ ВИДЕЛИСЬ DAVNO NE VIDELIS / 다브노 네 비젤리스

끝까지 기도하고 주의 영광 위해 사는 것

편집부

기도의 사명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지난 5월17일(목)부터 19일(토)까지 삼일간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주어졌던 말씀을 요약합니다.

특새 첫날—어려운 일 당할 때

느 1:1-11 느헤미야가 당한 어려움 —두고 온 조국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가슴 아파하였다. 출세한 본인의 자리임에도 그는 조국의 아픔을 품었다. 느헤미야는 항상 조국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가 이 어려울 때 한 처신은?

1. 나를 돌아보라 그는 다른 이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였다. 언제나 지도자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살펴야 한다. 이 시대 느헤미야는 누군가? 에스더가 누군가?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나라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어려운 일 앞에 의심, 원망이 찾아올 때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 교회 성전건축 시작케 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다. 한국이 초기에는 큰 부흥과 선교로 나갔으나 안주하고 머물러서 눈물을 잃고 간절함을 포기하니 소망이 없는 교회, 비난받는 모습이 되었다. 우리 조국 또한 부를 누리고 성장을 이루었다고 자만하여 거짓과 악에 묻혀 가도 감각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나갑시다. 반드시 이뤄질 일이니 우리는 간증하고 영광돌리는 일만 남았다. 지금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임을 잊지 말자.

특새 둘쨋 날—칼을 차고 건축하라

느 4:15-23 365 번 성경에서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떤 일에도 두려움을 선택하면 안된다. 사랑을 택하라.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의 삶에 증거가 있게 되었다. 그 사랑의 열정으로 고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였다.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조국을 사랑 한다면 그 증거를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칼을 찾았느냐? 믿음의 칼, 성령의 검으로 준비하라. 우리 삶, 가정, 교회, 이 미국과 조국을 위해 칼을 차고 건축하는 자의 삶을 살자

특새 셋째 날—끝나매

느헤미야 6:15-16 느헤미야가 시작한 성벽 역사도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으나 끝나는 날이 있었다.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1. 자신에게 평화 샬롬 :평화. 샬람:끝나다 같은 어원이다. 지불되고 마무리 완성 되었을 때 오는 것이다. 어떤 일도 뛰어넘고 끝까지 갈 때 평화가 온다. 목표가 있으면 방해, 장애 있어도 끝까지 묵직하게 가야 한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이다

2. 원수에게 두려움 끝까지 하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오고 원수들은 두려움에 떨게 된다. 끝없는 흔드는 일이 많다. 미리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말라. 끝까지 가면 원수가 도망한다.

3. 하나님께 영광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주의 전을 짓는 일이다. 복음의 확산을 위해 쓰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이 아니다.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일이었다. 쉬우면 우리가 한 줄 알게 될지 모른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심을 밝히 알게 된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든든하게 된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눈물로 땅을 적시는 민족이 귀한데 지금 그 눈물이 마르고 애통이 말랐다. 우리가 이 책임을 자각하고 일어나자.

성전건축과 조국을 위한 기도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설계를 마치고 이 설계에 따른 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데 예상의 금액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현실이다. 이 예산의 큰 차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싸울 것을 타협으로 바꾸지 말고 세울 것을 허무는 자가 되지 말자. 신앙을 건축하고 가정을 건축하고 예배의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조국이 무너진 것이 있다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게 기도해야 한다

조국을 위한 기도가 있는 한,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세울 것을 세우고 싸울 것은 분명히 싸우는 자 되자.

지도자들이 이를 분별케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적과 은혜가 이 일에 있다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일이다. 나라를 위한 기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자.

뉴욕과 미국. 조국. 다민족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의 소명은 끝까지 기도하고 주의 영광 위해 사는 것이 사명이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2018년 5월 13일 주일설교
잠언 10:1-5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 10: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Mother's Day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부요한 자녀가 되라

부요한 자녀가 될 때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잠 10:3)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영혼이 주리지 않는 것은 풍성한 복을 받는 것,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진리,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복을 받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삼 1:2-4)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인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신 5: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고 부모에게 기쁨을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다에서 공경하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카베드 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베드의 명사는 카바드 입니다. 그 뜻은 영광입니다.
카바드: 영광 카베드: 영광 돌리다, 공경하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사용하신 단어는 카베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부모를 대하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부모님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요,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그들을 칭송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부모에게 큰 기쁨이지만 그렇게 부모에게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보고 부모들은 또한 기뻐하게 됩니다. 계명을 지켜 부요한 자녀가 되십시오.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노아가 실수 했을 때에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 주었고 다른 아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요한 자녀가 되십시오. 부모의 기쁨은 차고 넘칩니다.

2. 부지런한 자녀가 되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성공의 사다리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No one ever climbed the ladder of success with his hands in his pockets. 사다리에 오르면 손을 내놓아 사다리를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쉬지 않고 올라가야 꼭대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손을 집어넣고 게으르게 지내면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잠 10:4)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르고 느려터진 사람은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이 받아 주지 않습니다.
(마 25:26a)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 25:30)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사회도 싫어하고 마침내 하나님도 거부하는 그런 자녀를 보고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지런한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의 시대에는 게으른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잘 살아 보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교회에는 잘 믿어 보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의 눈에 아무런 목표도 없이 빈둥빈둥 게으르게 지내는 자녀를 바라본다는 것은 속이 터지는 일입니다. 잘살아 보겠다와 잘 믿어 보겠다를 하나로 묶어서 펼친 운동이 가나안 농군학교 운동입니다. 1962년 고 김용기 장로님이 시작하신 운동이고 지금의 그 분의 아들이신 김평일 장로님이 계속 이어가시는 운동입니다.

그 김평일 장로님이 자신의 아버지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의 제목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입니다. 그 책에서 아버지의 신앙과 일의 모습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제창한 7대 강령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역사의 동상이 되자.
둘째, 우리는 시대의 등불이 되자
셋째, 우리는 판단의 저울이 되자
넷째, 우리는 문화의 발판이 되자
다섯째, 우리는 선악의 거울이 되자
여섯째, 우리는 지식의 채찍을 가하자
일곱째, 우리는 신앙의 불길을 일으키자

가나안 농군학교의 생활신조는 처음과 나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를 되찾아 부모님께 효하고 살자. 만유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살자. 그 아드님이 아버지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책에서 보게 됩니다. 고 김용기 장로님이 하늘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믿는 자녀를 보고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 5: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뿐 아니라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일하십니다.
(빌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얼마 전에 수십 년을 어려운 한 지역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젊은 선교사들이 옛날같이 부지런하지 않다고 하시는 탄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달리는 가문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부지런한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녀는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합니다. 부지런한 자녀는 부모의 기쁨일 뿐 아니라 사회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3. 분별하는 자녀가 되라

전도서 3장은 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3:1-2)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때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녀가 때를 잘 분별해야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잠 10:5)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듯이 부모님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 ★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의 옛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네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네게 한 것처럼 네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 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써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써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 한단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의 중심이 우리였습니다. 효도조차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에 맞게 분별력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부요한 자녀입니다. 부지런한 자녀입니다. 분별하는 자녀입니다. 이런 자녀 됩시다.

2018 4월 29일 주일설교 (학개 2:1-9)

회개의 제단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제단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제단은 하나님이 지시하여 만든 제단인데 놋 제단, 번제단으로 부릅니다.

1.회개의 제단

번제단은 회개의 제단입니다. 제단의 모양은 네모반듯하고 그 규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회막 동쪽에 있는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만나는 제단이며 죄인이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짐승을 성막에 가져와 그 희생 제물을 죽이며 피를 흘리고 살을 태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희생 제물처럼 죽어야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며 제단의 모습대로 반듯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는 놀라운 축복을 열고 마침내 천국까지 여는 황금 열쇠이기도 합니다.

회개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번제단 처럼 예배의 첫 자리에 있어야합니다.

2. 찬송의 제단

제단은 찬송의 제단입니다.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은 구원의 뿔이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배에는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찬양을 하여도 구원의 은총을 충분히 찬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단은 찬양의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3. 불의 제단

제단의 이름이 번제단입니다. 그 제단에는 불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불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불이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고 선교로 이어져서 성령 받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제단은 회개의 제단, 찬송의 제단, 불의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찬송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2018년 5월 6일 주일 설교 (사무엘하 18:31-33)

압살롬은 잘 있느냐?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은 그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 말을 질문의 형식을 가지면 상대방을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1. 빠른 질문

구스 사람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미 죽었고 다윗의 질문은 너무 늦은 질문입니다.

얼마 전 라이언 미 하원의장이 자기의 임기가 끝나면 정계에서 은퇴를 발표하며 이유는 세 명의 십대 자녀들과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과의 시간을 지금 놓치면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관심이 있다면 Right Time에 질문을 하십시오.

2. 바른 질문 – 평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인 팍스(pax) 는 물질과 힘이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사상으로서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넓은 땅을 정복했고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팍스의 삶으로 내몰 때가 많습니다. "공부 많이 했니?" "이번 학기 성적은 어떠니?" "장학금은 얼마 받니?" 이런 질문은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인 샬롬(shalom)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샬롬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있는 것이며 사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이며, 세상에서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샬롬은 힘없고 돈 없는 자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자녀들에게 샬롬을 원하는 부모들의 질문은 다릅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있지?"

"너 오늘 힘든 것은 없었니?" 샬롬의 질문은 자녀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다윗의 질문은 원어에 따르면 "압살롬은 샬롬하냐?"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샬롬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힘들어 하는 아담에게 너무나 적절한 시간에 샬롬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빠른 질문, 바른 질문 이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2018년 5월 20일 주일 설교 출애굽기 28:1-43)

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나의 죄를 짊어지심

야곱의 열 두 아들은 죄인들이었는데 지금은 제사장의 어깨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깨도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죄를 지신 어깨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짊어지우신 우리들의 죄를 순종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짊어지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의 확신과 감격, 구원의 성장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2. 나의 삶을 인도하심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빔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판결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으로, 완전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의 청색 겉옷 아래에는 방울이 달려있는데, 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살아 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에게는 방울 소리인 생명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빛에 이르게 되고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 일그러진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День Пятидесятницы

송요한 목사

Один из самых интересных контрастов, который мы видим на страницах Библии. Это контраст, который явил в своей жизни Апостол Петр. Мы видим с вами Петра, который отрекается от Христа трижды(от Луки 22:60), и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го Апостола, проповедующего в день Пятидесятницы, так что к Богу обращается три тысячи человек(Деяния 2:14-41). Символично этот контраст можно передать старым и новым именем Апостола. Симон – что в некоторых источниках мы можем перевести от слова "тростник", до Петра- что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камень. Этот разительный контраст от всякого ветра разверваемого тростника, до твердыни, камня. Что же произошло такого, что Петр так изменился. Между отречением и великой проповедью. Стоит одно событие – это день Пятидесятницы. Точнее, то что произошло в этот день. Дух Святой сошел на учеников, и они были наполненны силой Свыше. Они были наполненны Духом Святым. Этот месяц мы празднуем как месяц "Сошествия Святого Дух". И более чем когда либо, давайте с вами подумаем о том, какой смысл дает нам с вами это величайшее событие, сошествие Святого Дух!

Вообще без Святого Духа христианское ученичество немыслимо и даже невозможно. Не может быть жизни без Подателя жизни, нет понимания без Духа истины, нет братского общения без единства Духа, нет подражания характеру Христа без плодов Духа и нет эффективного свидетельства без Его силы. Как бездыханное тело есть труп, так Церковь без Духа мертва.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с вами, что апостол Лука прекрасно осознает это. Из всех четырех евангелистов именно он придает особо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Духу Святому. В начальных стихах каждой из своих двух книг он показыв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исутствия в верующих тех качеств, которые дает Святой Дух. Так же, как при Иоанновом крещении Иисуса Святой Дух ≪нисшел на Него≫, чтобы Он начал Свое публичное служение ≪исполненный Духа≫, ≪ведомый Духом≫, ≪в силе Духа≫ и ≪помазанный≫ Духом (Лк. 3:21; 4:1,14,18), так же теперь Дух нисходит на учеников Иисуса, чтобы облечь их на миссионерское служение миру (Деян. 1:5,8; 2:33). В первых главах Деяний Лука говорит об обетованиях, о дарах, крещении, силе и полноте Духа в опыте Божьих людей. Терминов много, и они взаимозаменяемы; но реальность одна, ее заменить невозможно ничем.

Эта реальность многосторонняя, и мы можем рассматривать день Пятидесятницы по меньшей мере в четырех аспектах.

Во-первых, это был финальный акт спасительного служения Иисуса перед Его вторым пришествием. Он, Который был рожден в наше челове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жил нашей жизнью, умер за наши грехи, восстал из мертвых и вознесся на небеса, теперь послал Своего Духа Своим людям, чтобы образовать Свое Тело и сформировать в нас то, что ради нас искупил. В этом смысле день Пятидесятницы неповторим. Рождество, Страстная Пятница, Пасха, Вознесение и Пятидесятница являются ежегодными праздниками, но рождение, смерть, воскресение, восшествие и дар Духа, которые мы празднуем, произошли один раз и навсегда. Мы с вами видим в Пятидесятнице еще одну уникальность того, что обетовал Иисус Христос в евангелии от Иоанна 14:16 " И Я умолю Отца, и даст вам другого Утешителя, да пребудет с вами вовек…"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ятидесятница это завершающий акт спасительной истории, свершенный по обетованию Иисуса Христа.

Во-вторых, Пятидесятница дала Апостолам то облачение, в котором они нуждались для выполнения своей особой миссии, которую Господь заповедовал ученикам во всех четырех Евангелиях. Мы называем эту миссию "Великим поручением Христа". И наверноее наиболее твердо оно сформулированно в Деяниях 1:8 " но вы примете силу, когда сойдет на вас Дух Святой; и будете Мне свидетелями в Иерусалиме и во всей Иудее и Самарии и даже до края земли." Христос помазал их стать Его главными и авторитетными свидетелями и обещал им последующее водительское служение Святого Духа. Пятидесятница была исполнением этого обещания. Именно то что произошло в этот день стало предвозвещать всемирную христианскую миссию. Обратите внимание на стихи во второй главе с 9 по 11 стихи Лука старается подчеркнуть космополит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толпы при помощи

выражения ≪из всякого народа под небом≫. Хотя не все народы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там буквально, но все они были там представлены. Ибо Лука включает в свой список потомков Сима, Хама и Иафета и представляет в Деяниях 2 таблицу народов, сравнимую с таблицей в Бытие 10 главе. Епископ Стефан Нейл сделал следующее замечание: ≪Большая часть людей, упомянутых Лукой, подпадает под семитов, где Еламиты — первые из семитских наций, упомянутых в Бытие 10. Но Лука также включает Египет и Ливию, которые подпадают под хамитов и критян (Киттим), и жителей Рима,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тданной когда-то Иафету… Лука не привлекает нашего внимания к тому, что делает; но в своей ненавязчивой манере он дает нам понять, что в день Пятидесятницы там присутствовал весь мир в лиц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мых различных наций≫ .

Ничто лучше этого не могло б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многорасовый,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 и многоязычный характер Царства Христа. С тех самых пор ранние Отцы церкви и комментаторы рассматривали благословение Пятидесятницы как отмену проклятия Вавилона. В Вавилоне языки человеческие были смешаны и народы рассеялись: в Иерусалиме языковый барьер сверхъест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был снят как знамение того, что теперь все народы соберутся вместе во Христе, предвосхищая тот великий день, когда искупленный народ ≪из всех племен и колен, и народов и языков≫ будет стоять ≪пред престолом≫ (Быт. 11:1–9; Отк. 7:9). Более того, в Вавилоне земля высокомерно пыталась достичь неба, тогда как в Иерусалиме само небо с кротостью спустилось на землю. Это стало великим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понимания миссии которой мы должны с вами исполнить здесь на земле. Показателем нашей с вами мультиэтнической миссии во Флашинге.

В-третьих, Пятидесятница принесла открытие новой эры Духа. Хотя Его приход был уникальным и неповторимым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ытием, теперь все Божьи люди всегда и везде могут получать помощь через Его служение. Хотя Он сделал Своими главными свидетелями Апостолов, но и нам Он дал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чтобы стать Ему последующими свидетелями. Вдохновение Духом данное Апостолам, сегодня дано и всем нам. В этой новой эре водительства Святого Духа, мы имеем потенциальный источник нашей силы, в нашей жизни святых на земле.

В-четвертых, Пятидесятница была названа, и правильно, ≪возрождением≫, ≪новым рождением, или рождением заново≫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этого слова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одного из совершенно необычных посещений Бога, когда все сообщество явственно осознает Его могущественное и ощутимое присутствие. Поэтому, возможно, не только физический феномен, но и глубокое осознание греха, 3 000 уверовавших людей и охватившее всех чувство благоговения явились признаками этого ≪нового рождения≫. Однако нам следует быть осторожными и не пытать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нятие ≪нового рождения≫, чтобы оправдать себя, когда мы занижаем свои надежды или переводим в разряд исключительного то, что Бог задумал как норму для церкви. Ветер и языки пламени не были нормой, возможно, иные языки тоже; но нормой стала новая жизнь и радость, братское общение и богослужения, свобода, смелость и сила .

Дорогие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Разрешите пожелать вам, в эти дни просто: “Наполнения Святым Духом!!!” Иисус Христос заповедовал своим ученикам в день Своего вознесения “ но вы примете силу, когда сойдет на вас Дух Святой; и будете Мне свидетелями в Иерусалиме и во всей Иудее и Самарии и даже до края земли”. Сегодня пусть Сила Божья Иисуса Христа пребудет со всеми вами!

오순절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조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베드로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눅 22:60)와 오순절 날 설교를 통해 삼천명을 회심시킨 베드로(행2:14-41)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조적인 모습은 사도 베드로 이름의 변화에도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출처에 따르면 시몬(Simon)이라는 이름은 갈대를 뜻하고 베드로(Peter)은 반석을 뜻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예수님) 부인 했던 자에서 위대한 설교자로 변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

리는 6월을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 기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 제자도는 성령님의 임재 하심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 없이는 어떤 계시도 있을 수 없고, 성령으로 연합 없이는 영적공동체도 있을 수 없으며, 성령의 열매 없이는 예수님을 닮는 삶도 불가능 하며, 성령의 권세가 없으면 감동적인 간증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재 하시지 않는 교회는 마치 생명력 없는 죽은 육신과 같습니다.

오늘날 사도 누가(Luke)는 누구 보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았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복음서 중, 누가는 특별히 성령님의 중요성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도입부에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신 후에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시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눅3:21, 4:1,14,18) 하셨던 것 같이, 성령님은 제자들을 보내어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행 1:5, 8; 2:33) 사도행전 1장에 누가는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은사와 권능과 성령충만함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여러 용어가 있고 이들 간 상호대체성이 있으나, 실상은 하나로, 어떤 것도 성령님을 대체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성령강림은 다각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으나, 최소한 네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첫번째로, 성령강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지상 마지막 구원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령강림절은 매우 특별합니다. 크리스마스, 성금요일, 부활절, 예수 승천일, 성령강림은 매년 있는 기념일이지만, 실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승천, 성령님의 강림은 한번 밖에 없었던 사건이며,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이시기도 합니다. “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14:16)” 따라서, 성령강림은 예수님의 약속하셨던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두번째로는 성령 강림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지상 최대명령 (The Great Mission)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의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8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이후 사역을 성령님께서 담당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강림은 이 같은 약속의 완성이 됩니다. 이 사건은 세계 기독교 미션을 예정하신 것 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과 특히 사도행전2:5에 “천하 각국으로부터”라는 표현을 통해 누가는 큰 무리가 범세계적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민족을 나열하지 않았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민족들은 셈,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며, 이는 창세기 10장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스테판 네일은 누가가 언급한 민족들은 대부분 샘의 후손들이며 창세기 10장에 나오 듯이 엘람인들은 셈의 첫번째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함과 깃딤(야벳의 손자)의 후손인 애굽인, 리비야인도 언급하고 있으며, 한때 야벳에게 주어진 땅에 훗날 거주하는 로마인들도 언급합니다. 누가는 구체적으로 모든 민족을 언급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성령강림은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역사임을 언급했습니다. 여러 인종과 여러 민족과 여러 방언이 모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는 없었을 것 입니다. 옛날부터 교부들과 성경해설자들은 성령강림 사건을 바빌론의 저주를 푼 사건이라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바빌론에서 언어가 뒤죽박죽 되면서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면, 예루살렘에서는 언어장벽이 초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어 마지막 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이다(창11:1-9; 계7:9)고 말합니다. 더욱이 바빌론은 세상의 교만함으로 천국에 닿으려고 했다면, 예루살렘은 천국이 지상으로 친히 찾아 온 것입니다. 이 것이 우리 교회가 플러싱에 세워져 다민족 선교의 비젼을 품어야 하는 위대한 증거가 되는 것 입니다.

세번째로 성령강림은 성령님의 새 시대를 여는 사건이 됩니다. 성령님의 강림이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을 그의 주 목격자로 세우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를 따르는 증인이 되기 위한 필요들을 채워 주십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영감들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오늘날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힘의 원천이 이 세상 삶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네번째로 성령 강림을 정확하게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로 표현 할 수 있는데, 이는 공동체가 생각 할 수 없는 가장 드문 방식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기 때문이다. 물리적 현상뿐 아니라 깊은 죄에 대한 통찰로 인해 삼천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회심하게 됐고 경외감 넘치는 숭배의 양상으로 인해 “새로운 탄생”이라고 일컫는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 태어남”이라는 용어를 소망을 과소평가 하는데 우리 자신을 정당화 시키거나, 교회 일을 배타적 범주에 연관시키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모든 교회가 공통 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새로운 삶과 행복과 친목과 예배와 자유와 용기와 강함이 공통 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단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The Day of Pentecost

One of the most fascinating contrasts in the bible is the Apostle Peter’s life. We know Peter, who denied Christ three times (Luke 22:60), and the apostle, who preached on the Day of Pentecost and turned three thousand people to God (Acts 2:14-41). This contrast can be symbolically expressed through old and new name of the Apostle. Certain sources state that Simon means a reed, and Peter means the rock. I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windswept reed and the strong rock. So what have transformed Peter from denial into the great preaching? It is the Day of Pentecost and the things happened that day. Holy Spirit descended upon disciples and they were filled by the power from above. This month we celebrate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And more than ever, let’s think of the importance of this great event, the descent

of Holy Spirit!

Christian discipleship is impossible without existence of Holy Spirit. There is no life without a Giver of life, no revelation without the Spirit of truth, no brotherly communion without the unity of Spirit, and there is no imitation of the character of Christ without fruits of the Spirit and there is no touching testimony without His power. Like the lifeless dead body, the church without Spirit is dead. Today, we see that Apostle Luke understood it. Out of four evangelists, Luke gives a special importance to the Holy Spirit. In the beginning of both of his books, he writes about the necessity of qualities that Holy Spirit gives to followers. As well, as John baptized Jesus,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so he began His public ministry "full of the Holy Spirit", guided by the Spirit, "in the power of Spirit" and "anointed by Spirit" (Luke 3:21; 4:1,14,18), therefore Holy Spirit descends on Jesus' disciples for them to witness to the end of the earth (Acts 1:5,8; 2:33). In the first chapters of Acts, Luke speaks about promises, gifts, baptism, power and the fullness of Spirit believers receive. There are a lot of terms and they are interchangeable; but the reality is one – it cannot be replaced by anything.

This reality is multilateral, and we can at least look into four points of the day of Pentecost.

First, it was the final act of the redemption ministry of Jesus before His second coming. He who was born in our human society, lived our lives, died for our sins, resurrected and ascended to heaven, so now He sent His Spirit to believers to form His Body. At this aspect, the Day of Pentecost is unique. Christmas, Good Friday, Easter, Ascension and Pentecost are annual holidays, but the birth, death, resurrection, ascension and the gift of the Spirit that we celebrate have occurred once and forever. In the Pentecost we also find another promise Jesus Christ made in John 14:16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to be with you forever…". Thus, the Pentecost is the final act of the redemption accomplished through the promise of Jesus Christ.

Second, the Pentecost gave the Apostles vestments they needed to fulfill their special mission, commanded by Lord in all four Gospels. We call this mission "The Great Commission". And probably it is better described in the book of Acts 1: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Christ anointed them to become His leading witnesses and promised them the subsequent leading ministry of the Holy Spirit. The Pentecost was the fulfillment of this promise. The things happened on this day prefigured the World Christian Mission. If you pay attention to the verses 9 to 11 of the second chapter, you will find that Luke tries to emphasize the cosmopolitan nature of the crowd through the expression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Even though not all the nations literally were present there, but all of them were represented. For Luke includes in his list the descendants of Shem, Ham and Japheth, and represents in the book of Acts, chapter 2 a table of nations comparable to the table in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0. Bishop Stefan Neil noted that the most of the nations mentioned by Luke are related to Semites, and the Elamites are the first of Semitic nations from the book of Genesis, chapter 10. But Luke also mentioned Egypt and Libya, which are the Hamites and Cretans (Kittim), and the inhabitants of Rome from the territory that once was given to Japheth... Luke does not stress our attention, but in his unobtrusive manner he tells us that on the day of Pentecost all the world was represented. Nothing better than this could demonstrate the multiracial, multinational and multilingual nature of the Kingdom of Christ. Ever since, the ancient Church Fathers and commentators symbolize the Pentecost as the abolition of the curse of Babylon. In Babylon, the languages were mixed and the nations dispersed: in Jerusalem, the language barrier supernaturally vanished so all the nations come together in Christ, anticipating that great day when the redeemed people from all tribes, nations and languages will stand together before the Throne (Genesis 11:1-9; Rev 7:9). Moreover, in Babylon, the earth arrogantly tried to reach the heaven, while in Jerusalem the heaven itself descended to the earth with meekness. And this became a great evidence of the mission we have to fulfill on earth, through our multi-ethnic church in Flushing.

Third, Pentecost brought forth the opening of a new era of the Holy Spirit. Although His coming was a unique historical event, all God's people now can receive His help through His ministry. Even though He made the Apostles His main witnesses, He also gave us everything necessary to be His following witnesses. Inspiration given to Apostles is given to us today through Holy Spirit. In this new era guided by the Holy Spirit, we have the source of our strength, in our lives on the earth.

Fourth, Pentecost was correctly named as a "reborn", a "new born", referred to one of the most unusual presence of Almighty God that the community could think of. Therefore, perhaps not only a physical phenomenon, but also a deep awareness of sin, 3,000 people turned to God and common awe-filled reverence were the signs of this "new birth". But we should not use the term of "new born" to justify ourselves when we underestimate our hopes or relate simple for the church things into the exclusive category. Even though the languages were not common, but the new life and happiness, fellowships and worships, freedom, courage and strength are the common for all churches.

Dear brothers and sisters! Let me simply wish you to be filled by the Holy Spirit. Jesus Christ commanded his disciples on the day of His ascension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And let the power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all of you!

러시아어권 예배부

The spiritual unity in Jesus Christ

Elizaveta Son

Two years ago, the Russian Ministry has officially opened and started its journey. Though we are still growing, our ministry has come a long way. We started with around 3 families coming regularly and now we have a solid 40 people coming each week.

In addition, we developed a deep network with other Russian Speaking churches and communities. We now have home Bible studies, in which we further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God's word and fellowship with one another.

Over last two years, I understood the hard work behind the opening and maintaining a new church. The process of figuring out the "behind the scenes" was definitely not the easiest, but it was this period of time that brought everybody in our community closer.

We all worked hard – together. 1 Corinthians 12 talks about enjoying our differences, and becoming one body in Christ. Every person has contributed to the foundation of our church; each person became an essential part of our body.

We all rejoice together in moments of happiness and share grief in moments of mourning. Forming new connections and friendships, truly were blessings from God. As our church continues to walk together, we learn more about God's grace and sovereignty. Our church is not going through this journey alone. God has blessed us, with another community that supports and helps us.

My personal adjustment to New York was much smoother thanks to the welcoming people in KAPCQ. The Senior High community was the place where I could meet people my age, on a similar spiritual stage as me.

I learned a lot, through teachers and students. The time I spent in Senior High helped me realize how much more I need to learn about God. And as I am graduating from Senior High, I hope to acquire that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n QPEM and Russian Ministry.

Our church is continuing to improve and grow. The members are always happy to see new people join our close ties.

The community in KAPCQ has been very welcoming and supportive.

Every time, I am filled with an utmost pleasure, when I see all of the ministries joining together for events and services. The breaking of language, ethnic, and cultural boundaries and the spiritual unity in Jesus Christ is truly the church that I

am very glad to be part of.

이년 전 러시아어 회중의 공식 여정이 시작되었다. 아직 성장 중에 있지만, 러시아어 회중은 긴 여정을 지내 왔다. 처음 시작 때는 세 가정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40여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어권 교회들과 지역사회와도 깊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가정 성경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서로에 대한 유대감도 깊어지게 되었다.

지난 이년간,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일 이면에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알아가는 과정이 녹녹치 않았지만 공동체 구성원을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정말 열심히 해왔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각 지체의 다름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각 사람이 교회의 기반을 이루는데 기여하였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알아가게 되었다. 우리의 이 여정은 우리만의 외로운 여정이 아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우리는 다른 언어회중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다.

내가 뉴욕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훨씬 쉬웠던 것은 감사하게도 퀸즈장로교회 성도님들의 환영이 있었기 때문이며 고등부를 통해 나와 같은 영적수준의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졸업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QPEM과 러시아어 예배부에서 채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러시아 회중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 할 것이다. 우리 각 지체들은 늘 새로운 교인들이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언어와 인종과 문화의 벽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되는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인 것이 너무 기쁘다. 각 나라의 여러 회중이 모여 행사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면 큰 기쁨이 넘친다

新朋友毕业礼见证

全教会与兄弟姐妹一起崔庆彬

弟兄

在很多中国人的眼里，美国和以色列是最受神祝福的两个国家。一个是发达国家里面基督徒比例最大的国家，另一个更厉害，是神的选民。去年我慕名而来到美国；长老教会是一个纯正基督信仰的教会，所以我来到美国的第一个周日，上帝就把我带到了这里。如今我已经到了教会近半年，参加了新人班，成人主日学，弟兄团契，EE三元布道培训以及感人至深的爱加倍团契，感受到了这个教会在处处传讲神的话，践行神的话，是一间复兴的教会，满了神的同在与祝福的教会。不得不让我感谢上帝，带领我来到一间这么好的、功能齐全的教会。

现今的时代风云变化，基督徒属灵前辈们逐渐离世回到天家。这两年离去的就有伟大的布道家葛培理，“有名的”传道者边云波，为主奔跑倾倒一生的神仆陈希曾。我相信，神要兴起像我们这样的年轻人起来服侍神，传讲神。虽然我们不能够像乔纳森爱德华兹 (Jonathan Edwards) 那样引领美国的大觉醒运动，但是我们可以成为一个神的精兵，给我们的家人，同事，朋友带来祝福，重要的是，引领全家归到主的名下。同时，我们要知道：我们如今是一个属于主的人。罗马书14:8所说：如今我们若活着，是为主而活；若死了，是为主而死。所以，我们或活或死总是主的人。所以今日我们这一班人也要有这样的心志，求神的灵住在我们心里，为主而活。

神籍着保罗告诉我们，“我们进入神的国，必须经历许多艰难”（使徒行传14:22）。行走天路历程，并没有那么容易，靠着自己走不下去。我们要怎么办呢？除了依靠主耶稣之外，还需要弟兄姊妹之间的相互扶持。在十天前，我们家小以诺发高烧出现癫痫的症状，我们急忙把他送去医院。在医院里我们给教会的弟兄姊妹们说，请为以诺祷告。感谢神，垂听了我们的祷告，保守医治了他。新人毕业之际，也盼望弟兄姊妹们多多参与到教会的生活与服侍当中，与弟兄姊妹们相交，彼此代祷、扶持与造就，一同走天路。

最后，求神保守弟兄姐妹们的心思意念，给我们智慧与力量，竭力的追求主，行走在神命定的道路上，这样，当审判日来临时才能够坦然无惧的站在神的面前。

|새가족 졸업 간증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

Cui Qing Bin형제

작년미국에 온 첫주일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퀸즈장로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이고 이곳으로 인도해주신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교회에 등록한 지 반년이 되었고, 새가족 공부와 주일학교, 형제 모임, 전도폭발훈련, 감동을 주는 아가페 부부모임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부흥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축복받고 있는 교회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새가족을 졸업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더욱더 교회의 많은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하길 바랍니다. 주님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제목을 서로 나누며 중보기도 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이 험한 천성가는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을 지켜주셔서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新朋友毕业礼见证

通过新人班的学习得到灵命成长

沈玲玲 姐妹

在第四届新人班毕业典礼里，每一个人都充满了喜乐的表情。一个爱神的人， 首先是从渴慕神的话语开始。 新人班七堂课很扎实，从耶稣的降生到生平所行的奇迹，都有很生动地讲解。 在属灵喂养上得到很大的帮助。 感谢神！ 羔羊宝血作了救赎的工作， 耶稣领受了苦杯， 将福杯留给我们，使我们得着永生的盼望。

我个人信主后，也真正尝到主恩的滋味， 便知道祂的美善，投靠祂的人有福了， 信主之前，夫妻二人，住在一个租来的小房间， 没有厨房，厕所还得和两户人家公用。信主后，夫妻二人在餐馆打工，时间长，又辛苦，每天都精疲力尽。 我向神呼求“主啊！我要拥有我自己的事业。带领我离开这困境。”我看上一间咖啡店，要价24万，神保守我以十分之一的价钱，2万4千就拿下来。开张第二个月，餐馆被刊登在各大报纸的美食专栏， 客人天天排队。神开的门，没有人能关上，神赐的福，没有人能夺去。现在我们在曼哈顿，皇后区，新泽希，都有自己的产业。神赐我们已超出我们所求所想。神也教导我们有衣有食就当知足！我在三年前就放下所有的事业。神也带领先生在政府部门，作个官员，投入新的跑道；行公义，好怜悯， 存谦卑的心，与主同行！ 我在家专心做个家庭主妇，主恩满满！家庭、教会、工作、 职场，都是我们为主作盐发光的地方。将一切的荣耀都归给神！与服侍当中，与弟兄姊妹们相交，彼此代祷、扶持与造就，一同走天路。

最后，求神保守弟兄姐妹们的心思意念，给我们智慧与力量，竭力的追求主，行走在神命定的道路上，这样，当审判日来临时才能够坦然无惧的站在神的面前。

在主里我们成为一家人

姜吉琼 执事

4月29日，在早堂崇拜之后，中文堂迎来了第四届新人班毕业礼。这次毕业的44位新人中，有基督徒和慕道友，他们通过不同的方式聚集到中文堂，通过完成7堂新人班课程的学习， 正式成为韩中长老教会中文堂的一员，迄今为止，在中文堂新人班毕业的人数已达252人。

第四届新人班毕业礼，是在《我们成为一家人》的歌声中开始的，无论是陈传道的短讲、敬拜小组的诗歌、还是夫妇团契的献唱，都向这些新成员发出同一个信息--我们因着基督的爱走到一起，在主里我们是一家人，韩中长老教会这个大家庭，张开双臂欢迎他们。

第四届新人班毕业礼，在金星局主任牧师的祝福和弟兄姐妹的歌声、欢笑声中结束。饭食小组特地为毕业礼预备了丰盛的午餐，中文堂有150名左右的弟兄姐妹、参加了当天的毕业礼。

새가족 졸업 간증

새가족 공부로 영적성장을

Shen Ling Ling 자매

제 4기 새가족 졸업식때 매 사람마다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함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새가족 공부 일곱번수업은 예수님의 출생, 생애동안 행했던 기적들을 아주 생동감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린양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잔으로 우리에게 복의 잔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저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있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만족하는 법을 알게 하였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긍휼이 풍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4기 새가족 졸업예배 스케치

주님 안에 한 가족

Jiang Ji Qiong

4월 29일 제 4기 새가족 졸업식에는 44명의 새가족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중국어 예배부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일곱번의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정식으로 퀸즈장로교회 중국어 예배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어 예배부 새가족 졸업한 사람은 252명에 달합니다.

제 4기 새가족 졸업식은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는 중국 찬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첸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경배와 찬양, 부부연합선교회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설교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며 퀸즈장로교회라는 큰 가정은 새가족들을 두팔 벌려 환영한다는 동일한 메세지를 전했습니다. 김성국 목사님의 축복기도와 함께 성도님들의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를 마쳤으며 150명 가까이 되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새가족을 환영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以赞美得荣耀的神特别预备了

2018年的一月，神为中文堂的诗班预备了奇妙的恩典。
赞美是敬拜神所不能缺少的一个事工。在这美好的事工里，尹元常传道和尹贤珠师母被任命为指挥和伴奏。
介绍一下尹传道为主日崇拜事奉的亚萨诗班和希幔诗班指导的事工。

찬양으로 영광받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

2018년 1월 중국어예배부의 찬양대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빼놓을 수 없은 찬양사역에 윤원상전도사님과 윤현주권사님께서 지휘와 반주자로 임명받으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섬기는 헤만, 아삽찬양대와 지도하시는 윤전도사님의 사역현장을 소개합니다

为了完成使命的挑战

诗班长周永艳执事

사명의 완성을 위한 도전

찬양대부장 Zhou Yong Yan

伴随着2018年新年欢庆的喜悦，中文堂又传来了令我们激动不已的好消息。教会主任牧师指派对音乐造诣极深的尹传道来中文堂教导，扶持，指挥，帮助中文堂诗班。这对我们这年轻崇拜部中的年轻诗班而言，无疑是一件雪中送炭的美事，且超出了我们的所求所想，为此我们非常感恩神的奇妙作为。由于皇后区长老教会中文堂成立年数有限，诗班更是在这有限里迅速建立起来的。为此，无论是水平，技巧，心态都还处于不成熟阶段。

自尹传道来到中文堂，他那谦卑的身影即刻与中文堂诗班交之融合在一起。尽管语言，文化，生活等都有差异，但这诸多的不同与不便并未成为他为神作工，完成神托付的拦阻。反之， 尹传道在这极难的条件下，苦练中文，用中文指导诗班所唱的圣诗。感谢神恩待中文堂诗班，藉着神忠实仆人尹传道的衷心摆上，今日的诗班无论是从献诗的意义到知识与技巧都有很大的改变和提高。在这仅仅短短几个月的时间内凭借着尹传道的言传身教， 他对服侍的一丝不苟，他丰富的教导，指挥经验，他谦卑平和的为人， 他对神对人无私的爱，让诗班的每一位成员都因深受感动而被激励， 尽管唱诗水平距当有水准还相差甚远， 但事奉观念逐渐被调整到该具有的角度。

目前，除了主日崇拜开始前和主日学结束后练诗外，为了能够使我们

2018년 새해를 맞은 기쁨과 동시에 중국어 예배부에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윤전도사님과 윤사모님을 중국어 예배부에 보내주셔서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찬양대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을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것 이상이였습니다. 중국어 예배부가 설립된지 몇년밖에 되지도 않았고, 찬양대는 더욱 급하게 만들어진 상태라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윤전도사님과 사모님께서 찬양대를 섬기신 후로부터 그들의 겸손한 모습은 바로 찬양대 대원들과 어우러지셨습니다. 언어, 문화, 생활 등이 서로 달라서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전도사님께서는 지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중국어 발음을 열심히 연습하시고, 중국어로 찬양대가 부를 찬양을 지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인 윤전도사님의 섬김을 통하여, 현재 찬양대는 찬양을 드리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면과 신앙에서도 많이 향상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짧은 몇개월간 윤전도사님의 말과 행동으로의 가르침을 통하여 많은것을 배우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섬김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와, 풍부한 음악지식, 오래된 지휘 경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심없는 사랑은 찬양대원 한사람

这幼嫩诗班的音乐盲们在音乐上有所提高，尹传道在他百忙之中，抽出每周四晚为我们增设乐理基础知识授课训练，从认识五线谱着手开始教导我们，请相信这对我们很难，但对于一个语言不通不同的教导者更是难上加难。但让我们所看到，见识到的人恰恰不是一个知难而退向困难低头的人，相反是一个不惧艰难，不屈不挠，自我挑战者。从尹传道的身上，我们看到了他对神的委身，对神托付的认真与所付上的代价，也见证了神仆人对神的忠心。

他用中文唱诗歌， 众所周知的是他并不懂中文，但他不仅吐字清晰准确，更有甚的是我们背不下来歌词他竟然可以背诵，让我们倍感惭愧。同时， 也促使我们必须进取加油。由此也见证了他在这其中所付上的艰辛及超想象的代价。 为了提高和鼓励诗班成员的服事热忱及果效， 在尹传道的提议下， 过去的5月份，举办了中文堂诗班首届联谊活动，其中也安排了唱诗歌竞赛过程，对诗班成员而言， 无疑是即新鲜又具有挑战性的，即激动但又不乏小小紧张的一次聚会，相信我们感受到的不但是联谊更是爱与同心的聚集，是超越联谊本意的一件美事。

到目前为止， 尹传道来中文堂的时间尽管不长，但他的言行举止带给我们的影响及改变是有目共睹的， 是共所周知的。相信尹传道和中文堂的每位成员都有这一个共同的心愿， 完成神托付的使命，让神用全能复兴皇后区长老教会，因我们的共同努力，将福音及神救恩之大工传遍地极，成为神的使者， 为神成就最美之圣工全然奉献自己。传播神无比超越的大爱，使更多灵魂因认识神而蒙拯救。愿将一切的荣耀，赞美归给坐宝座的羔羊，归荣耀给圣父， 圣子，圣灵三一的真神!

헤만찬양대

아삽 찬양대

한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고 갈길이 멀지만 찬양대 대원으로서의 봉사와 섬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새로워졌습니다. 주일 예배전 찬양연습과 주일학교 후에 찬양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문외한인 찬양대 대원들의 음악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윤전도사님께서는 바쁘신 와중에 목요일 저녁 시간을 내셔서 음악기초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선 악보를 보는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음악 교육을 받아본적이 없는 저희들에겐 너무 어려운 과정이지만 말도 다르고 통하지도 않는 지도자의 입장에선 더욱 더 어려울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고 겪어본 분은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사람이였습니다. 어려움앞에서 머리숙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더더욱 굴복하지 않는 도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온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위해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일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윤전도사님은 중국어를 할줄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어 찬양을 가르칠때 보면 그의 발음은 똑똑할뿐만 아니라 아주 정확합니다. 심지어 중국인인 저희들도 외우지 못하는 가사를 다 외우셔서 저희를 부끄럽게 하고 당혹하게 할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또한 전도사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찬양대 대원들의 찬양 열정을 더 불러 일으키고 용기를 주기위하여 , 윤전도사님의 제의하에 지난 오월 찬양대 첫 친목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 중간에 찬양 대회를 열었습니다. 찬양대 대원들에게 있어서 새로우면서 도전적이고 흥분되면서도 긴장감을 갖게하는 모임이였습니다. 이번 친목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임였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윤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중국어 예배부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공통된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성시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퀸즈장로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데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구원 받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찬양대 연습시간

通过诗班的联谊活动成为一体

金三喜执事

一直很感恩神的拣选能够与一群志同道合的弟兄姐妹们一起在主里服侍。中文堂从最初建立到如今的复兴已经不知不觉地走过了四个年头了。在这四年里我们每一个人在神的家里一起经历了很多，也见证了很多历史性的时刻。很感恩中文堂每一个服侍的岗位都有一群特别爱主的肢体在共同努力着，以至于今天的我们比以前更好，这一切都是神的恩典和圣灵的带领，相信我们在天上的父一定会喜悦的。

中文堂的诗班真的是一群蒙福的人在一起为主扬声歌唱。我们虽然不足，但主依然爱我们，使用我们，愿意接受我们的服侍和敬拜赞美。我们中文堂崇拜是分为早堂和晚堂，因此诗班是由早堂亚萨诗班和晚堂希幔诗班组成的。区别在于早堂亚萨诗班是由不同年纪的弟兄姐妹服侍，晚堂希幔诗班是由年轻的单身青年们来服侍的。大部分的弟兄姐妹都没有受过任何专业的音乐训练，所以音乐理论和发声技巧都不算很熟练，但可贵的是大家都有一颗愿意谦卑顺服努力学习配合的心来到主面前，献上自己现有的。

一直祷告神能继续加添能力和热情，使我们的诗班越唱越好。愿盛满圣灵的感动，大家所唱出的美妙诗歌不仅能到达神的施恩宝座前，神的恩典再次降下来又可以鼓舞弟兄姐妹感受到主爱的大能，愿每一次崇拜诗班唱响诗歌时能彰显神的荣耀并引人归向主。　感谢神在2018新年里，在诗班服侍上给我们预备了尹指挥和尹师母两位。帮助我们教导我们一起更好更有能力地的敬拜赞美主。籍着两位的辛勤摆上，还有弟兄姐妹们的认真努力学习，我们的诗班正在不断地在向着美好的方向前进着。

经过了5个多月的磨合，无论是尹指挥，尹师母还是每一位诗班的弟兄姐妹们越来越熟悉，越来越有爱，越来越像一家人了。虽然我们语言不通，文化不同，但是在主里我们能够喜乐地一起服侍，这一切都是神的恩典，因为我们在彼此的身上感受到神特别的爱和美好计划。 5月6日主日中午诗班成员一起聚集在体育场开派对庆祝，一起享受美味食物和团契相交。每个人预备了三首诗歌。两人一组，由尹指挥随机选诗歌进行了诗歌比赛。整个活动非常的温馨有爱有欢笑，弟兄姐妹们在诗歌比赛中更多的是团契相交，彼此联络，建立起更加深厚的感情。诗班最年长的成员，新进的成员和努力服侍的弟兄姐妹们都获得了奖品。尹指挥也发表了感言，鼓励大家继续努力追求和更加有自信地去唱诗歌。诗班在指挥的带领下，一天天学习成长。无论是灵性上的预备自己如何更加用心灵和诚实来献上诗歌，在诗歌的演绎技巧上也能够更加的有自信。

诗班是一个整体，大家的心都在一起时，所发出的声音才会是更加的有能力与合一的合唱。诗班不是表演合唱团，诗班是主的属灵精兵团队，我们所献上诗歌之前唯有借着更多的祷告，更多的磨合练习，更多的人心合一才能够更加的有能力，才是神所喜悦的献祭。我们虽然不足，但愿我们依然不忘初心，在神的呼召之地，我们全心敬拜，无论何时何地我们都要敬拜赞美祂，因为神是配得一切的敬拜和赞美。

찬양축제로 하나가 되어

김삼희 집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마음을 품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국어 예배부는 처음 설립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부흥의 불길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한사람 한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많은 것을 체험했을 뿐만아니라, 많은 역사적인 시간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나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국어 예배부는 현재 오전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아삽 찬양대, 오후에는 헤만 찬양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삽 찬양대는 연령대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섬기고 있고 헤만 찬양대는 젊은 청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전문적인 음악 훈련을 받아 본 경험이 없기에 음악적인 이론과 발성기술은 숙련되지 않지만 정말 귀한 것은 모든 분들이 더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힘과 열정을 주셔서 찬양대가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한 성령님께서 감동하사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찬양대가 모든 예배가운데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6일 주일 점심, 우리 찬양대 일동은 함께 체육관에 모여 찬양 축제를 가졌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룹 교제시간을 가지면서 각사람이 찬양 3곡을 준비하였습니다. 두사람이 한팀이 되어 윤 지휘자님이 찬양을 고르면 바로 나와서 찬양 시합을 하였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즐거운 시간이였습니다. 찬양 시합을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가며 하나가 되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였습니다. 또한 찬양대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과 새신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 부르신 분들은 모두 상품을 받았습니다. 윤 지휘자님도 우리를 더욱더 자신있게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어 찬양대는 윤 지휘자님의 이끄심에 따라 영적인 부분에서 자신을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올려 드리고, 음악적인 면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지 날마다 배우고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첫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곳에서 마음을 다해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18 여름성경학교 - VBS

아하~ 예수님!

Director 이명옥전도사

2018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의 우리 자녀들이 하늘 별미로 배부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구원과 회복을 맛볼 귀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Shipwrecked, Rescued by Jesus' 어린 자녀들이라 해도 이들의 마음에는 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망과 좌절을 겪으며 외로움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을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해결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래, 맞아, '아하!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고 해결책이고 회복자이며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VBS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시18:19) He brought me out into a spacious place; He rescued me because He delighted in me. (Ps 18:19)를 주제 성구로 아래 다섯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번 VBS를 준비합니다.

1) 2018 VBS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 회복자, 인도자는 예수님 한분 뿐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한다

2) 상하고 깨어진 모든 관계, 마음, 가정, 상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어떻게 보시며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지 알게 한다.

3) 나를 통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를 향해 나가게 한다.

4) 교사들은 좀 더 어린이들 가까이 다가가고 부모와 함께 좋은 신앙교육의 하나됨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한다.

5) 일년에 한 번 가지는 하늘 잔치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높임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고 나아가 상처와 아픔, 깨어짐의 자리에 있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한다.

이를 위해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 후원을 기다립니다. 라비에 비치될 고리금식표에 함께 해 주시고 기도문을 가지고 꼭 기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QPEM DEACONS AND LEADERS RETREAT 2018

General Formation and Discipleship

Elder Symong Choi

On May 19th, QPEM held its Deacons and Leaders retreat of 2018 with the topic focused on being an "Emotionally Healthy Church". This year we had 31 of our deacons and leaders attend, this retreat and initially we had planned for a "retreat" away from the hustle of urban influences and be one with nature and to enjoy the beautiful scenery at Sunken Meadow State Park. However, God had other plans and the weather forced us to change venue locations and have the leadership retreat in the QPEM chapel. It goes to show that God really does know what's best for us even when we think differently.

For quite some time, we have been praying for a revival to occur within our ministry and also within the hearts of the leaders and of the congregation. I believe this is a common request and ambition for many churches and ministries. But before we could seek and even see a true revival and change, Pastor Peter challenged us to look into our hearts, "engaging the heart". Why the heart?, because our actions originate from the heart. In Luke 6:45,

"The good person out of the good treasure of his heart produces good, and the evil person out of his evil treasure produces evil, for out of the abundance of the heart his mouth speaks."

Often times, when we seek change in our lives, we try to change from the outside (our environment, those around us, our behaviors) instead of looking inwards into our hearts and seeing what our deepest desires are. If we want change or a revival to occur in ourselves then we must look into our hearts. But sometimes looking into our own hearts or seeing where our own desires lay is difficult to do. Pastor Peter lead us through some exercises where we watched video clips from Les Miserables and the Cinderella Man and answered 4 questions of the heart; what are you observing? What are you feeling? What desires are touched in you? And what choices do you want to make? These exercises helped us to examine some of the motives or components that go into our own decision making and actions.

Afterwards we took part in a personal assessment to determine our level of emotional health in areas of "General Formation and Discipleship" and "Emotional Components of Discipleship". It was difficult to be completely honest with my own responses, it made me feel vulnerable at times but sometimes the truth hurts. After recording your own score, you were put into a range of "emotional maturity". The ranges went from Emotional Infant to an Emotional Adult. Some of the characteristics of an Emotional Infant were: "I look for other people to take care of me emotionally and spiritually. I am consistently driven by a need for instant gratification, often using objects to meet my needs. When trials, hardships, or difficulties comes, I want to quit God and the Christian life. I sometimes experience God at church and when I am with other Christians, but rarely at home." An Emotional Adult demonstrates characteristics such as: "I respect and love others without having to change them or become judge mental. I am deeply convinced that I am absolutely loved by Christ and as a result do not look to others to tell me I'm okay. My Christian life has moved beyond simply serving Christ to loving him and enjoying communion with him."

Lastly, we took one final assessment to help identify the strength and weaknesses of our church around 6 key areas of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This assessment helped us to see what areas in the ministry we were good at equipping and empowering our members but also what areas where we may not be equipping or even impeding our members in.

Overall, we knew that by the end of the day we weren't going to expect immediate or drastic changes in our own lives, not from just one day. But this was going to be a starting point, to start looking into our own hearts and finding change from within.

I would like to also acknowledge and thank our young adults who sacrificed their Saturday to help serve and babysit the children of the deacons and leaders so that this retreat could be possible. Also, to our wonderful chef - Deacon Albert for sacrificing his day and time to preparing all the delicious food throughout the day.

문턱은 낮추고 훈련은 더욱 가깝게. 전도폭발훈련의 새로운 방향,

"Just EE!"

전도폭발위원장 - 최원일 장로

지 합쳐 12주 훈련으로 재편 된 것이다. 교재 또한 휴대하기에 편리하도록 작아지고 디자인도 새로운 감각으로 바뀌었다. Classic이라는 고전적이며 다소 구식이라는 느낌의 훈련 수식어를 ' Just' 로 바꿈으로서 새로운 마음과 활력으로 전도폭발 훈련을 확장해 가자는 포부를 담았다.

60여년 전통의 국제 전도폭발 훈련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국제 전도 폭발 미주 한인본부 (대표: 이희문 목사)는 지난 4월 30일부터 사흘간 텍사스 달라스 참빛 교회에서 미주 한인 지도자 대회를 열고 미주 한인교회들에 전도폭발 훈련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전도폭발 한국본부 대표 홍문균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전도폭발훈련의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Just EE"를 소개한 것이다. 우리 교회 전도폭발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오인수 목사와 최원일 장로가 참여한 이 대회에는 은혜 한인교회, 남가주 동신교회 (이상 로스앤젤레스), 뉴비전교회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형제 교회,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 (메릴랜드), 벧엘교회 (메릴랜드), 아름다운교회, 프라미스교회 (이상 뉴욕), 캘거리 한인장로교회등 미국 동서부와 캐나다의 대표적인 한인 교회 목회자 및 지도자 60여명이 함께 하였다.

홍문균 대표에 따르면 지난 60년간 전도폭발현장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왔던 현행 13주차 훈련 ' 클래식 전도폭발훈련' (Classic EE)"이 새롭게 단장된 것이 'Just EE'이다. 클래식 전도폭발훈련의 장점은 그대로 계승하되 단점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도록 다듬은 훈련방식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45분정도 걸리던 1단계 훈련 복음제시가 20분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에 암송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기가 주저 된다는 이들에게 희소식이다. 이제는 20분으로 줄어든 복음제시를 통해 훈련생들이 한결 쉽게 복음제시를 암송하게 된 것이다. 훈련을 갓 시작하는 훈련생들에게 복음제시의 암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복음제시의 단순성에 중점을 두었다. 복음제시를 듣는 전도대상자들도 복음의 핵심을 더욱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숙제점검, 암기점검등 종합필기시험을 없애 전체적인 점검 과정 또한 상당히 단순해진 점도 눈에 띄는 변화이다. 이런 각종 점검은 기존 클래식 훈련체제에서는 훈련이 진행될수록 훈련생으로 하여금 훈련이 더욱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된 것이 사실이다. Just EE는 이런 각종 점검 과정을 줄이고 현장실습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킴으로 훈련을 받을수록 훈련이 쉽게 느껴짐으로 훈련생의 흥미를 유도하도록 설계 되었다. 훈련기간 또한 13주에서 12주로 단축되었다. 훈련기간을 더욱 줄이자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도폭발훈련의 핵심은 현장실습에 있다는 원칙이 견지되어 최소 10회의 현장실습을 전제로 개강및 종강하는 주까

기존 클래식 전도폭발 훈련의 한계 가운데 하나는 훈련내용이 방대하고 훈련방식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탓에 훈련생들이 1단계 훈련만 받고 그 다음단계로 나아가기를 포기함으로써 훈련자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홍문균 대표에 따르면 Just EE는 12주 훈련을 잘 감당하면 누구든지 훈련자로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Just EE는 국제전도폭발본부의 위임하여 한국전도폭발 본부가 2년에 걸친 연구와 한국에서 모범적으로 훈련을 이끌어 왔던 교회들의 20여회의 임상훈련과 회의를 통해 다듬어졌는데 지난 2년간 임상훈련에서 이런 장점들이 증명되었다고 홍대표는 소개했다. 바뀌지 않은 것들도 많다. 훈련을 예배로 시작하고, 훈련생 점검, 강의, 시범, 현장실습등 학습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음제시의 골격과 마지막 주에 시행하는 구두 복음제시 시험도 그대로 유지된다.

오인수 목사, 홍문균 목사(국제전도폭발 한국대표), 김만풍 목사 (미주한인본부 전 대표), 이희문 목사 (미주 한인본부 대표), 최원일 장로

우리교회는 이번 가을학기를 시작하기전에 전도폭발훈련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고 지금껏 전도폭발 훈련을 거쳐간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변화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올 가을학기부터는 Just EE 훈련을 도입하여 훈련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 문턱은 낮추되 전도 훈련은 더 강해지고 전도는 더욱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퀀즈장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2018 효도관광

아버지! 어머니!

손정호 집사

5.14일 월요일 , Bathpage State Park에서 효도관광이 있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출발한 버스의 도착을 기다리던 우리에게로 김원도 장로님이 오시며 물으셨다. 전문가용 디지털 사진기를 멋지게 메고 나타나신 장로님은 활기 넘치는 목소리로 "나는 사진촬영하러 왔어! 아직도 효도관광 자격이 안 돼~" 하며 그 동안의 효도관광에 대해 말해 주셨다.

20여년 전 장로님이 바울선교회에서 효도관광을 섬길 때 60세가 효도관광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71세가 되어야지 효도받는 나이가 되었다며 격세지감이 느껴진다고 하셨다. 60세, 65세, 70세, 71세로 바뀐 나이를 보면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가 된 것 같다며 70세 젊은이(?)는 섬김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셨다.

아버지 세대인 장로님의 뒷모습에서 지난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는 1946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지 꼭 1년이 되는 날에 태어나셨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얼마되지 않아 6.25 전쟁이 일어났고, 폐허로 변한 궁핍한 환경속에서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배고픔의 일상이 되어 굶주림의 고통을 겪었던... 그런 어려웠던 시절에 아버지는 성장하셨다.

5남2녀 중 차남이었던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다리가 불편해지시는 일이 있으신 후 어려서부터 가정을 책임져야 했다고 하셨다. 큰아버지는 학교를 갔지만 아버지는 16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50년이 넘도록 소를 키우며 근면성실함 하나로 부모님을 모셨고 자식을 길러내셨다. 더욱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동생들까지 공부시키며 도우며 살아 오셨다.

간략한 아버지 생애이지만 같은시대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공통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어르신들을 모신 버스가 도착하였고, 오늘의 주인공 아버지, 어머니들이 오인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가 시작되었다. 시편 92편 말씀으로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전히' 란 말씀을 강조하시며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여전히 아름답고 건강하신, 여전히 견고하고 변치않는 믿음이신, 여전히 넘치도록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 풍성하신 어르신들임을 선포하셨다.

이민 1세대로 조국을 떠나 꿈을 품고 이곳에 오신 어르신들이 이민의 서러움과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견디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심을 말씀해주셨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까지 살게 해 주시고 또 오늘을 맞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 이라는 어느 권사님의 말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무엇이든 풍족한 시대가 되어 100세를 희망하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 안에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지난해 갑자기 살이 빠지며 담도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었다. 부랴부랴 한국을 찾아 아버지를 뵙고 2주간 함께 시간을 보냈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니 믿는 자를 예수쟁이라며 예수님을 거부했던 아버지였다. 새벽마다 아버지 발을 주무르며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했고, 일주일이 지난 뒤 예수님을 믿게 된 나의 간증을 어렵게 꺼냈었다. 막상 나의 간증을 들은 아버지는 밝게 웃으며 "내가 우리 아들 믿는 예수님 믿을게!"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얼마되지 않아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다.

자식은 효도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언제나 건강하시고 언제나 함께 있을 것 같았던 아버지였는데 너무나 갑자기 가족 곁을 떠나셨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믿지 않는 아버지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편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시도록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 감사한 일이었다.

매년 효도관광 때가 되면 부모님이 더욱 생각이 날 듯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홀로 되신 어머님께 평소 자주 안부드리는 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어머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끝으로, 효도관광은 바울선교회가 주관하지만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30대 청장년부, 40~50대 남여선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모두 함께 합심으로 준비하며 섬겨 주셨다. 바울 선교회 일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자녀로서 믿음 안의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어 기뻤고, 여전히 견고하신 크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모세의 길을 걷고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

| 전교인 한마음 축제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을

편집부

5월 28일 메모리얼 데이, 올 해에도 어김없이 전교인 한마음 축제가 롱아일랜드소재 벨몬트 레이크 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교인이 하나가 되어 즐기는 한마음 축제는 퀸장을 떠올릴 때에 빼놓을 수 없는 큰 행사입니다.

이른 아침 공원으로 모인 성도들은 각각의 남녀선교회로 입장식을 하였고 뒤를 이은 영어, 러시아어권, 중국어 예배부의 행렬은 어디가 끝인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긴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뒤이어 교회학교 교육부서 입장식까지 마친 후 4개국어로 개회예배를 드렸습니다. 입장식을 통해 빠르게 부흥성장한 중국어 예배부의 참여가 해를 더할수록 배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다민족예배의 막내인 러시아어권 예배부의 참여 또한 배가 된 모습과 함께 가족단위의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귀한 열매맺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다민족예배의 비젼을 성취해가고 있는 이 때에, 한마음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는 더욱 남다릅니다. 매 주일, 다른 예배장소와 시간으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퀸장의 다민족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퀸장 공동체 안의 모든 민족과 언어,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게임을 통해 더욱 친밀하게 결속, 연합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뜻을 합하는 연합을 한마음 축제를 통해 다시 생각해봅니다.

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축제를 위해 섬긴 진행부와 온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대가족이 된 러시아어권 예배부랍니다 ^^

2018 단기선교팀 다섯미녀의 아름다운 미소

손에 손을 잡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요

유초등부 어린이들의 목사님 사랑 ~*

어서 나오렴!

퀸장 어르신들도 나란히 나란히!

와우~ 중국어 예배부! 놀라운 부흥성장과 함께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공동체

퀸장 가족 모두 모여라~~! 다민족 예배부의 온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2018 선교바자 이야기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조성순 집사

유월의 첫 토요일에 예정 되어진 선교바자를 앞두고 퀸즈 장로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바자를 몇일 앞둔 시점의 뉴욕 일기 예보는 심상치 않다. 미리 준비된 행사는 비가 와도 Go~~~를 외치는 퀸장이지만 선교바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오랜 기도와 준비로 온 가족이 함께 치루며 특별히 선교와 연관 되어선 효율을 극대화 하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좋은 날씨는 기본인데 D-데이를 하루 앞두었지만 일기 예보는 통 시원한 소식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마침내 당일의 아침은 밝았고 기후에 관한 염려는 기우(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렸다. 올해도 이미 일본으로 출발한 중기 선교사를 포함한 150여명이 단기 선교를 위하여 9개 지역에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중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하여 올해도 퀸장의 모든 가족들은 마음과 정성을 모아 나선 것이다. 각 선교회와 부서별로 오랜 시간을 준비하며 기도하였고 당일이 가까워지면서 밤새워 작업을 하는 선교 회원들도 있었기에 퀸장의 선교 바자는 한마음으로 치루어지는 자타가 인정하는 뉴욕의 명품 바자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다. 16개의 남여 선교회 그리고 교회 학교와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온 교회가 바자로 북적였다. 바자 중간 중간 드려진 찬양과 율동 그리고 두드림의 깜작 연주까지 흥을 돋우며 피치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 교역자님들, 연합여선교회, 중국어 예배부, QPEM 영어 예배부, 러시아어 예배부와의 인터뷰가 있었다.

교역자 인터뷰 – 일년에 두번 있는 선교와 건축 바자를 치루면서 일손이 없어 힘들어 하시고 늦게까지 여러가지 준비로 교회에 남아 육적 피곤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막상 여러분의 교역자를 인터뷰 해 보니 어쩜 이 분들 하나 같이 입술에 감사가 넘친다. 바자 여러 주 전부터 기도하였음은 기본이다. 힘든건 하나도 없고 서로 도우며 함께하니 감사하다. 교회 어르신들도 바자를 통하여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후원 할 뿐아니라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음을 너무 감사해 하신다는 소식도 전하여 주었다. 준비하고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곤은 잊을 수 있지만, 나에게 필요치 않은 물건들이 필요한 손에 좋은 가격으로 들려져 얻은 수익이, 가는 선교사들의 제정에 도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다음 번에는 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더 잘 할 수 있을거란 우리 교역자님들 정말 짱이다!

연합 여선교회 –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종잣돈을 위하여 만든 음식들도 여러번 다 팔려 나갔고 함께 준비하며 진행되는 즐거운 축제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모든 선교회 회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었고, 이를 통하여 선교의 문이 열려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가 넘친다고 이번 바자의 의미를 전하여 주었다.

QPEM 영어 예배부 –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들이 바로 선교와 선교를 위한 훈련에 포함된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두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며 QPEM의 전통 메뉴 오레오 튀김, 레모네이드, 불고기 타코를 소개해 주었다.

러시아어 예배부 – 내년에는 러시아어 예배부에서도 단기 선교사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 성도들의 자원된 물질과 마음으로 함께 준비한 바자엔 날씨와 상관 없이 귀한 은혜를 주신다. 다 민족이 어우러져 한국 음식, 러시아 음식, 중국 음식들로 풍성하게 잔치가 준비되고 선교를 위한 재정이 채워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올해도 러시아어 예배부의 양꼬치는 하나도 남김 없이 인기리에 다 팔려 나갔다.

중국어 예배부 – 수요 기도모임을 통하여 바자를 준비했고 주일엔 광고를 통하여 기도 협력과 참여를 독려하였다. 야외 음악회에선 주향팀이 공연을 지원하였다. 현 성도들 뿐아니라 장결자들도 초대하여 함께하는 바자를 준비하였다. 우리 교회는 많은 언어로 예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나가 전하는 일에 하나 되기를 바란다. 다민족이 화합하여 서로 돕고 다 민족 구성의 장점을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가장 비중있는 일들중에 하나는 바자가 아니가 싶다. 어린 아이들의 손을 통하여,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장년, 어르신들 할것 없이 하나가되어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바자는 사실 여로모로 힘들고 피곤한 일 일수 있다. 그렇지만 사순절을 통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온 우리 이기에 보내는 선교사로 또는 가는 선교사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서로 돕고 함께 일을 치루었다. 가는 식구들은 기도중에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나가 전하는 일이 남았고, 보내는 식구들은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잘 감당되고 열매를 맺어야겠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달 준비 열심 열심!

바자도하고 도란 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바자도 하며 찬양도 함께

바자개회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올해도 어김 없이 오레오 튀김 인기 짱 큐펨 입니다

건강 녹두 빈대떡 하나에 $5

세개 사시면 내년에 하나 더 드려요

수제 명품 돈까스 주세요

시작전 몸 풀기

알뜰 샤핑객들의 천국

어르신들의 화원

주문 밀린 것 곧 나갑니다

미녀와 튀김! 퀸장 최강미녀들의 튀김 맛 좀 보실라우~~

올해도 어김 없이 왔습니다 양고기 꼬치!

율동은 이렇게 하는 겨!

저렴한 가격으로 귀부인 되었습니다

후레쉬한 과일과 얼음 그리고 팥의 만남!

중간 중간 흥이 넘치는 찬양도 기본 입니다

케릭터 화가 Mr. Tau

선교 바자가 한창 진행중일때 한쪽에서 많은 시선을 모으는 한 형제가 있었다. 올해 처음 깜짝 등장한 케릭터 화가 Tau 형제이다. QPEM에서 예배드리는 중국인 형제이며 다른 장소에서 그동안 그려왔는데 선교 바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짧은 시간에 인물의 특징을 살려내 그리는 손끝을 통하여 멋진 작품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수익금은 전액 선교헌금으로 드려질 것이라는 형제의 헌신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눈을 기쁘게 했을 뿐 아니라 그의 헌신을 받으실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셨음을 믿게하는 오늘, 온 퀸장의 식구들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데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Mr. Tau 씨~ 예쁘게 그려주세요 ^^

캐릭터 그림 완전 대박이예요 ㅎㅎ

가정의 달 연합 예배

가정의 달 연합예배 스케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최성은 집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5월 20일 오후 4시에 새로운 형식의 연합예배가 드려졌다. 영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함께 예배를 위해 본당에 모여들었고 차윤일집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가족찬양팀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기타를 치고 부부가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은 마치 이 연합예배의 상징처럼, 천국의 모습처럼 아름다왔다. 최성호집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세 기도는 목소리는 다르지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음으로 감사하며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최재영, 이혜연 부부의 시편 128:1-6편 성경 봉독에 이어 9명의 어린이와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아름답게 드려져 어우러짐의 예배 모습이 유감없이 연출되었다. 김성국 목사님께서는 '복있는 가정'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가정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려면 첫째, '수고가 있는 부지런한 가정', 둘째, 스킨쉽이 있는 '둘러앉는 가정', 세째,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교회의 번영을 함께 꿈꾸는 가정' 이어야 한다고 하셨다. 목사님의 기도 후에는 영아, 유아, 유치부의 특별 찬양 순서가 이어졌다.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잼잼잼잼 짝짜꿍 하나님을 찬양해~" 하며 찬양을 드리는 영아부, 놀라운 암기력으로 잠언과 요한복음말씀을 외워 깜찍하게 찬양드리는 유치부, "내 맘에 하고픈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 선택할래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쁜 찬양을 드리는 유아부의 모습은 오래도록 교인들의 마음에 기억될 것이다. 영상편지와 해피 투게더의 특별 순서가 이어지고 어머님 은혜를 다같이 찬송한 뒤 목사님의 축도로 가족 연합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영상 편지

전화를 걸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편지, 평소에 잘 못하는 말, "사랑한다"라는 말을 직접 하기 위해 전화를 걸 때는 모두들 어색해했지만 막상 "사랑한다" 라고 말한 뒤에는 뿌듯하고 눈물있는 감동을 가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해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하는 집사님은 꽤나 당황하신 모습이셨다. 막상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어렵게 " 사랑한다"라고 말하자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보는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냥 너무 고맙고 사랑하니까, 앞으로 더 잘해줄께" 라고 말하며 고마운 아내를 생각하는 집사님은 살짝 눈물을 보이셨다.

"아버지, 저 큰딸이에요" 응석 부리시듯 아버지 노래소리 듣고 싶다고 청하는 딸에게 "창공에 빛난 별~"하며 지체없이 우렁찬 노래를 들려주시는 아버지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딸과 아버님은 정겨운 대화를 이어가셨다. 전화 후 아버님의 사랑을 추억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은 무척 행복해 보였다.

"우리 며느리가 충격받으면 어떡하지?" 하며 조심스레 전화하시는 김성국 목사님. 여러 안부를 물으신 뒤 "우리 며느리 사랑해요" 라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셨다. 목회자의 아내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드님을 잘 보필하고 함께 해줘서 참 고맙다며 흐뭇해하셨다.

남동생의 전화를 "What's up" 하며 받는 누나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동생. 누나가 해준 게 너무 많아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동생에게 쿨하게 "I love you, too" 라고 응하는 누나의 대화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자란 남매의 모습을 보았다.

진지하게, 하지만 어색하지 않게 아내에게 전화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집사님. 연애 뒤 결혼한 후로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백을 하니 다른 느낌이라는 집사님의 행복한 모습은 우리가 왜 가족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를 다른 설명이 필요없이 보여주었다.

해피투게더

무대에는 임지홍, 이세현 집사 부부, 김용생 장로님, 그리고 김수연집사, 김홍덕권사님 부부께서 앉아계셨고 최원일 장로님의 사회로 해피투게더 좌담이 시작되었다.

김수연/김홍덕 부부

26년 전, 남편 김수연집사님께서 한국까지 선보러 오셔서 짧은 한국 체류일정 중 세번째 만났을 때 "평생을 주님만 찬양하며 살겠다"고 말하는 김집사님의 말 한마디에 결혼을 결심하고 무작정 미국으로 따라 왔는데 그 주님이 주(主)님이 아니라 술 주자의 주(酒)님이셨단다. 애주가 남편과의 결혼생활 12년을 맞는 새해 첫 주, 김집사님은 '생명나무를 선택하라'라는 주제의 제직 신년헌신예배에 갔다오신 후에 갑자기 술과 담배를 전혀 하고싶지 않고 생각만해도 역겨워졌단다. 김집사님께서는 멋쩍게 웃으시며 당시 술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된 것은 아내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하며 그 후로 성경이 읽혀졌고 기도할 수 있었고 진정한 주님을 찬양하게 되셨다고 한다. 김권사님은 시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15년과 지금까지 26년을 시어머님과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효부라 할 수 있을텐데 자신은 효부가 아니며 효부가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다고 극구 부인하셨다. 하나부터 열까지 공통점이 전혀 없으셨던 시어머니와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 남편 집사님께서는 아내를 위로하기 보다는 며느리로서 어머님의 그런면까지도 품을 수 없다면, 자신은 어머님을 버릴 수가 없으니 아내가 떠나는 수 밖에 없다고까지 말씀하셔서 너무 서러웠다고 하셨다. 그렇게 힘들때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 전도서를 묵상하며 말씀으로 위로가 되니 시어머니와의 사이에 끼여 있는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남편보다 시어머님과 한편이 되었단다. 김집사님은 이렇게 곤고한 날을 잘 이겨내신 아내에게 " 여보, 내 마음 알죠? 그동안 내가 잘 표현을 못했는데. 이해해 주어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따뜻이 말씀하셨다.

임지홍/이세현 집사 부부

결혼 7년차이며 15개월된 아들을 둔 부부이다. 아내 이세현집사님은 1부 예배반주자로 섬기시고 남편 임지홍집사님은 한의대 4년과정 학생이시다. 결혼 후 줄곧 기다림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는 아내에게

임집사님께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셨다. 서른이 훌쩍 넘은 나이든 학생 남편의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을 하셨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집사님은 남편 가문을 보고 결혼했다고 단호히 말씀한다. 가문이란 것이 재력이 아니고 4대째 믿음의 가문이셨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집사님도 3대째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때문에 믿음의 유산, 그안에

흐르는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기에 구한말 일제시대 이전에 하나님을 영접한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 영광이였다고 한다. 시댁 증조 할아버님은 구한말에 해남에서 광주까지 세금을 운반하시는 일로 광주를 오가시며 나주 들판에서 김매시는 분들의 찬양소리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셔서 은혜 받은 증조할아버지 부부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쓰며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해남 전역에 복음을 전하셨다고 한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키우겠다는 분명한 남편의 포부는 늦깎이 학생을 뒷바라지하는 아내를 신나고 배부르게 한다며 든든해하셨다. 졸업 후 한의사 면허증을 따서 의료선교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날을 생각하며 하나 하나 더 잘 준비하겠노라고 말씀해주셨다.

김용생 장로님

3월 중순에 아버지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 한국에 다녀오셨다는 장로님은 어린 시절 아주 엄하셨던 아버님을 추억해주셨다. 아버님은 시골 학교선생님이셨고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가족을 건사하려면 장남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장남인 장로님께는 혹독하리만큼 엄하셨지만 두 동생들에게는 꽤나 관대하고 자상하셨다고 한다. 그때문에 좀 삐뚤게 나간 적도 있다시며 중학교때부터 도시로 나와 학교를 다니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고 이후로는 아버지를 일년에 한 두번 밖에 뵙지 못했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게 되어 더 뵙기 어렵게 되셨다고 한다. 아버님께 점수를 드린다면 100점에 60점 정도의 박한 점수를 드리지만 그 점수랑 상관 없이, 아버지께서 떠나시고 나니 그제야 아버지 생전에 더 잘 해 드리지 못한 후회가 많으시다고 한다. 10년 전, 아버지께서 전화로 "너는 앞으로 나의 용돈을 매달 준비하여 그 돈으로 비행기 표를 사서 일 년에 한번 나를 보러 오너라. 그렇게 한들 내 생전에 너를 열 번 정도 밖에 볼 수 없지 아니 하냐."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매년 일년에 한번씩 아버님을 뵙기 위해 비행기를 타셨고 아들로서 한 일 중 가장 잘 한 일로 생각되어진다고 하셨다.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나이가 들어 아버지와 비로소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 두고만 계셨던 말씀들을 풀어놓으셔서 장남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 알게 되셨다고 한다. 그러시고 10년을 더 사시고 바라시던대로 아드님 얼굴 딱 10번 보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장로님께서는 아버지를 일찍, 더 자주 찾아 뵈었다면 아버지께 드리는 점수가 더 높았을 수도 었었다며 아버지께 드리는 점수가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은 장로님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하셨다. 장로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으신데 큰 따님은 아이 넷과 장로님 부부와 함께 살며 큐팸을 섬기고 둘째 아드님은 세크라멘토에 사신다고 한다. 삼대가 함께 퀸장을 섬기며 다세대 믿음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김용생장로님,김명숙권사님 가정을 박수로 축복하며 좌담을 마쳤다.

다양함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새로운 형식의 가정의 달 연합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의 모형인 행복한 가정을 모두 가꾸어가시길 기대해본다.

선교후원 야외음악회

담을 넘어 지역사회로

2018년 5월 26일 토요일 특별찬양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야외음악회가 본교회 코너 파킹장에서 있었습니다. 글로리아,그레이스 선교무용단, 두드림, 쥬빌리, 중국어 예배부 Beauty of heave, 주향등의 공연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6월2일 토요일에 있을 선교바자 홍보와 함께 음악과 예술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일 해외선교위원회와 선교위원회, 청년선교위원회의 연합으로 선교후원을 위한 헌옷, 쥬얼리 판매, 불고기버거, 붕어빵, 수제 방향제와 향초판매를 하며 축제의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음악회는 각 선교무용단의 부채춤, Umbrella Danc, 난타공연과 홍승룡장로님의 색소폰 솔로연주, 송창호집사님의 독창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으며 담임목사님의 말씀선포와 동시에 중국어통역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을 위한 모든 준비와 섬김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지는 음악회가 되었습니다.

야외음악회를 통해 교회 인근의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음에 큰 의미를 찾았고 이후 다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려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가도록 코너주차장 공간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엄마 아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려요!

유아부 부장 차동미 권사

가정의달 5월20일에 교육부서 유아부에서는 오인수 목사님의 눅2:46-47 사흘후의 성전에서 만난즉(성전중심) 말씀으로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교회 출석 안하시는 아빠를 초청해서 전도의 시간을 삼으며 장결자와 자주 결석하는 가정들도 특별한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와 권면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유아부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예배를 잘 드리며 말씀과 찬양으로 잘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린 시간이였습니다.

특별 순서로 말씀으로 잘 자라난 아이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부모님의 간증과 반별 말씀 암송 찬양, 매일 가정예배 드린 가정을 시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년선생님들의 수고로 예쁘게 만들어진 가족 사진 촬영 부스를 비롯해서 교사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기대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아부 어린이들의 참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서의 예배중심의 삶의 모습, 주일성수와 함께 교육부서와의 동역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증

말씀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로 키워요

— 이명남 집사
하은이 어머니

저는 원래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되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이없이 둘이 잘 살자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였는지 저희에게 태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정말 아이를 가지고 나니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넘쳤고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하은이가 뱃속에 있던 10개월동안 늘 찬양을 불러주었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아이로 자랄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은이는 웃음이 많고 찬양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겁이 많은 저를 위해 남편이 매일마다 해주던 기도내용 안에는 출산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고 빠른시간에 아이를 잘 낳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짧은 진통시간과 짧은 푸쉬후에 하은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나서 숨을 잘 못쉰다고 인큐베이터로 잠시 데려갔을 때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두시간 뒤 하은이를 만날 수 있었고 다행히 건강하게 저희 품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성경말씀에 자식은 은총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선물을 어떻게 잘 다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세상 뉴스를 보면 정말 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동성애, 폭력, 총기 사건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차라리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싶을 정도지만, 그렇게 우리의 힘과 뜻대로 하려한다고 해도 되지않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자녀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가 부모로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밖에 없다는걸 알게됩니다.

저희 가정의 가훈은 "하나님 먼저" 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주일성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가 아프다 하더라도 주일성수는 꼭 지키는 것이 저희 가족의 우선순위입니다. 일을 하여도, 공부를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은이는 의사놀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번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서 의사가 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의사가 되야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상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열심을 다했을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더 노력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 줄 수 있길 원합니다. 하은이는 자신이나 누가 다치거나, 비가와서 아빠가 운전을 조심히 할까 걱정이 될 때에도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많이 반성하고 우리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소통하며 자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가 본보기가 되어 잘 인도해준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결정권이 생기고 본인 주장이 생겨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며 빛과 소금으로 잘 자라도록 기도하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길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요!

이엘든, 임윌리암,
오소망 어린이 가정

간증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축복과 감사

— 구경민 집사
최정훈 엄마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꿈꾸며 설레던 시간도 어느새 훌쩍 지나 이제는 한 아이의 책임 있는 부모로 산 시간이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50일, 100일, 1년, 2년 이라는 시간이 그때는 왜 그렇게 더디게 갔는지, 왜 시간이 나에게는 그렇게 느렸었는지.. 처음 경험하는 부모라는 단어의 책임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고개를 가누고, 배밀이를 하고, 옹알이를 하고, 아장아장 걸음마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립고 아련한 시간이며 그때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하고 예뻐해주지 못한 것만 같아서 아쉽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한가지, 우리 아이에게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내가 너를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태교 했으며, 모태신앙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축복이 너에게 있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다녔던 교회를 예배 드리는 장소인지 놀이터인지도 구분하지 못했던 아이였고 사람들이 통성기도 할 때 무서워서 울며불며 매달렸던 아이였는데 이제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러 가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엄마가 아플 때 손 올려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주여'를 외치며 놀고 '아멘'을 입에 달고 살며 동요보다는 찬양을 부르는데 더 익숙하고 책을 읽어도 성경동화 읽기를 더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즐거워하는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습이 얼마나 보시기 아름다울지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축복이 저희 아이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지 알기에 기쁨으로 묵묵히 봉사하시며 한 아이 한 아이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의 모습에 도전이 되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은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제는 나아가 이 세상의 기둥으로 우뚝 서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멋진 크리스쳔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요!

이엠마, 배리원 어린이 가정

헌신예배 스케치

노래와 춤과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

편집부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5월 16일 수요일 저녁 특별활동위원회의 헌신 예배가 드려졌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랑예찬은 율동으로,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G2G는 노래로, 헬라어로 찬양을 뜻하는 Ainos 가 악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다. “예수 어린양 존귀한 이름”을 목소리 높여 부르며 예배는 시작되었다.

“헌신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며 찬양은 노래로 춤으로 악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라는 김성국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다. 우리의 차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주신 재능에 따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있음이 너무나 감격스럽다.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부리던 아이들이 의젓하게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퀸장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든든히 세워 언약의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기에 감사가 넘친다.

양로원 방문, 발표회, 어린이 전도 집회, 음악캠프, 정기 연주회등 많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의 푸른 새싹들이 건강하게 주안에서 자라나도록 끊임 없는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가까이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후원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돌리고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특별활동위원회의 헌신 예배가 마무리되었다.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

이정혜 권사

특별활동위원회는 하랑예찬, 아이노스 유스 오케스트라, G2G, 어와나로 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 정말 특별한 선생님들과 부장님들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매주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 곳곳에서 목소리로, 악기로, 율동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외웁니다.

착하고 귀한 아이들이지만 때때로 학교에서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주어진 시간동안 연습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또 질풍노도의 틴에이져가 되시면 악기를 들고 나타나 주시는 것만도 감지덕지, 한번만 더 연습해보자 선생님이 통사정 해야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곡이 만들어지고, 합창이 되고 율동이 맞춰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간절히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활동위원회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은 예배 뿐 아니라 음악과 예술, 모든 문화의 주인이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해, 아이들에게 주신 각기 다른 은사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아이들이 바른 예배자로 자라가며 이웃과 복음을 나누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돕겠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5월 19일 토요일에는 제 12 회 정기연주회에 앞서 뉴져지 소재의 양로원을 방문하여 위문 공연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귀에 익은 동요 “고향땅”과 찬송가를 들으며 즐거워 하셨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열린 정기연주회에서는 특별히 작년 뮤직캠프 이후 아이노스 기초반에 들어온 학생들이 처음 무대에 섰습니다. 악기를 막 잡기 시작한 기초반부터 아이노스 1, 2에 이르는 학생들이 반짝 반짝 작은 별에서부터 “The Sound of Music” 영화 수록곡 모음까지 다양한 곡을 연주했고 불과 3개월 여만에 다시 갖는 정기연주회지만 신선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늘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과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기도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권사님 서예전

예수의 향을 품은 작품

김수진 집사

늘 유쾌한 웃음과 대쪽같은 성품에 호 불호가 확실하시고 씩씩한 홍정희 권사님,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 하심을 교재 가운데에도 느낄수 있는 그런 권사님과 코드가 맞아 이따금씩 만나 식사도 하고 이런 저런 일로 조언도 받고 그런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된다. 그날도 권사님과 식당에서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수줍은 사춘기 소녀 처럼 살짝 흘기시며 “시간이 나면 구경한번 오시구랴~” 며 건네주신 빳빳한 봉투안에는 서예전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아직도 겨울이 길 떠나기 아쉬운지 잔뜩 찌푸리고 을씨년스럽게 안개비도 부슬부슬 내리던 전시회날, 이영희집사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작품 감상 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없으면 썰렁해서 어쩌냐며 걱정아닌 걱정을 하고 입방정을 떨었으나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괜한 걱정 했다 싶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광경에 어리둥절 하고 있던 차에 “에궁~바쁜데 찾아줘서 반갑구랴~” 하며 익숙한 권사님의 보조개가 환히 우리를 반겨 주었다. 소싯적 칠판 두드리시며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포스가 아직도 물씬 풍기는 스타일의 정장 투피스와 부츠를 신고 여자를 25% 더 이뻐보이게 한다는 귀걸이로 마무리 하는 것도 잊지 않으신 권사님은 그날 우중충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밝고 예쁘셨다.

두 전시회장의 벽을 빼곡히 채운 작품들은 보니 내 눈에는 하나 같이 자로 잰듯, 타자로 쳐서 프린트를 한듯 완벽함을 뽐내며 걸려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글들이 대부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들이었다는 것.

붓을 들고 글을 써 내려 갈때는 숨도 쉬지 않고 써야 한다시며 잘 써내려가다가 마지막에서 삐걱하여 작은 실수라도 하면 확 구겨 버려야 했던 파지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어떤 것들은 글씨 하나만 오려 붙이고 싶을 때도 많으셨다며 작품이 나오기 까지의 고초를 설명해주시는 권사님의 모습에서 뿌듯함과 수줍음이 보였다.

하얀 화선지의 검은 글 한자 한자가 한결같이 청렴과 절도, 절제 그리고 인내의 결과물인 것임에 우리 크리스챤의 삶도 매일 이렇게 하루하루 붓글씨를 쓰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지 않나 싶었다. 그렇게 소망하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모두 저 수묵의 향을 품은 작품들처럼 예수의 향을 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연약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고 매일 도전하시는 홍권사님과 작품들을 보며 더불어 도전 받는 귀한 초대전이었다.

문화 선교사역하시는 윤문선 목사

아버지의 마음 – 목판화 전시회

편집부

문화선교사역을 하시고 계신 윤문선 목사님(참 좋은교회 담임)께서 본 교회에서5월 13일과 5월 20일 두차례 ‘ 아버지의 마음’ 이란 주제로 목판화 전시회를 갖으셨다.

어린시절부터 화가의 꿈을 꾸었던 윤목사님께서는 미대재학 중 하나님을 만났고 졸업 후 후진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셨다. 하지만 아내가 첫 아이 출산 중에 의료 사고로 다급한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드리겠다는 서원기도를 드렸다. 아내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보답하기위해 교편생활을 접고 신학 목회학박사 학위를 마치고 사역을 시작하셨다 .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문화선교사역을 펼쳐가시며 한국, 중국, 미주지역 곳곳에서 성화전시회를 하며 문화사역자의 길을 걷고 계신다. 성화전시,판매 수익금으로 해외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윤목사님은 본 교회 전시회를 통해 문화예술사역이라는 새로운 각도의 사역을 보여주셨다.

| 한국어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 |

우리 가족, 우리 한국학교

김홍덕 권사

본 교회 한국학교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봄학기 행사로 교내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기초반 학생들은 그림 그리기를 하였고 초등부 이상 아이들은 '우리 한국학교' 혹은 '우리 가족' 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이라 한글로 문장을 만들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 열심히 하였습니다. 한국 학교가 재미있으며 앞으로 더 한국말을 잘 하게되어 한국에 가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소망과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부모님에게 드리는 사랑의 마음을 한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준 아이들의 작품을 보며 교사들은 기쁨과 감동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그 결과 너무나 멋진 창작 동시를 지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한국어교육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지켜주기 위해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과 숨겨져 있는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진 시간이였습니다. 봄학기를 마치며 글짓기와 그림그리기로 아름다운 열매맺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글짓기 대회 최우수상
박룡길 (박수빈,서진 어린이 아빠)

우리가족

아기햇살 미끄럼 타는 좋은아침에
오손도손 우리 가족 밥을 먹어요
냠냠냠 맛있는 엄마표 밥상
뚝배기에 보글보글 사랑 넘쳐요

쪼각달님 그네 타는 아늑한 밤에
아기자기 우리 가족 웃음꽃 펴요
아빠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눈은 초롱 귀는 솔깃 행복 퍼져요

한글학교 그림 글짓기 대회 수상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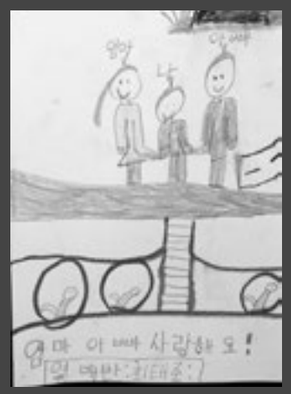
글짓기
최우수상 최룡길 (박수빈,서진 어린이 아빠)
금상 김진웅
은상 홍영선
동상 박리나

그림
금상 고은새
은상 최태준
동상 이예나
특별상 심태희

홍영선

김진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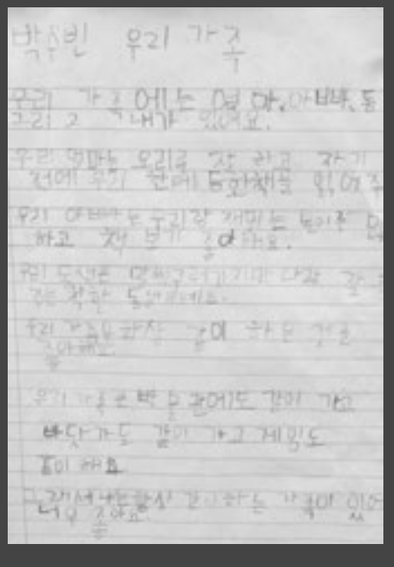
최태준



이예나

박리나

박수빈



고은새

김엘리

자연 속에서 골프로 신앙을 배우다

편집부

제4회 어스오픈골프대회가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에 롱아일랜드 Middle Island Country Club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선수 31명(남 6조 24명, 여 2조 7명)과 진행요원 4명 등 총 35명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오후 4시15분까지 진행된 이날 대회는 최적의 날씨와 시원한 봄바람이 더불어 모처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운동을 즐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전 7시 30분,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축복기도 후에 행사장으로 출발한 대회 참가자들은 9시30분 쯤 도착하여 김영오 장로의 기도, 김수산 장로의 환영인사, 윤석현 집사의 개최인사, 박정봉 집사의 대회진행 안내 순서 직후 샷건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대회 시상식 후 정길표 장로의 대회 마무리 기도로 폐회되었다.

Spruce 코스 9번홀(파4)에서
비거리 276야드로 장타상
(Longest Driver)을 수상한 최성수 집사.

Spruce 코스 8번홀에서
멋진 퍼팅을 선보인 이희영 장로.

골프의 좋은 성적은 만족감을 주니 감사하다. 또 나쁜 성적은 산으로 들로 운동하며 감사하다. 동반자에게 배우거나 도와주며 더 감사하고 OB와 벌타를 통해 교만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있다. - 번번히 공이 목적지를 벗어나고, 연못으로 빠지는 초보 골퍼 김만 집사는 라운딩 내내 웃음을 잃지않고 대회를 마치며 128타로 가장 많은 타수를 기록, '양파상'을 수상했다.

늑장 부리는 앞팀이나 재촉하는 뒷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주신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샷을 날린 후 공이 사망의 골짜기(헤저드, 벙커)를 지나 푸른 초장(페어웨이, 그린)에 놓이는 기쁨도 누린다. -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린을 찾은 골퍼가 많지 않아 대회 참가자들은 더욱 여유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었다. 근접상(Closest To The Pin을 수상한 조이리(Joe Lee) 집사는 Spruce 코스 8홀 파3에서 첫번째 샷으로 깃대(핀) 바로 옆에 붙이며 후발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골프도 사탄의 유혹이 있다. 내 샷은 벙커, 해저드, OB구역을 벗어날 것 같은 착각과 교만이다. 지나친 거리 욕심은 연못 속과 모래 웅덩이로 공을 인도한다. - 이날의 대회도 예외없이 욕심을 부리다 연못과 수풀 사이로 공을 찾는 이들을 볼 수 있었다.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도 골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창과 방패로 무장한 위풍당당한 골리앗은 드라이버 330야드를 치지만 차근차근 실력대로 그린을 공략한 다윗은 완벽한 물맷돌(퍼팅)로 완승을 거둔다. - 이날 7척 거인은 없었지만 라운딩 내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실력대로 한 샷 한 샷 정성을 들인 임석환 집사가 끝내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타이거 우즈는 정상의 시절에도 레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경주 선수는 매일 480타의 기초 연습을 '루틴'으로 반복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골프는 많이 닮은듯 하다.

제4회 어스오픈골프대회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비로 쓰여진다. 김태선 집사, 고정빈 집사, 정해성 집사, 심성문 집사 등 네 명이 계측요원으로 참여하여 대회진행을 도왔다.

10 오버파로 챔피언을 차지한 임석환 집사가
김수산 선교위원장으로부터 트로피를 받았다.

대회수상 내역

대상	임석환 집사
1등	박정봉 집사
2등	황태현 장로
3등	김지현 집사
장타상	최성수 집사
근접상	조이리 집사
양파상	김 만 집사
베스트드레서	한철익 집사
게스트상 남	김봉현
게스트상 여	홍미미

30대 남자 Outing

선물, 받는것인가 주는 것인가?

박상용 집사

"행복하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쉽게 할수있는 질문이다. 허나 또 어찌보면 심오한 질문이기도 하다. 남에게 질문하기 전에 현재 내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난 어떻게 답을 하겠는가? "상용아 너 행복하니?" 어떤 사람은 먹을때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쇼핑할때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날때 행복하다. '5가지 사랑의 언어' 라는 책이있다. (저자 Gary Chapman) 참 재미있게 읽은 책이고 공감이 많이 가는 책이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랑받을때 행복하다. 나도 그렇다.

내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옛날에 동생과 형이 있었다. 이 둘은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 형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하게 된다. 동생은 형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어리다. 어리숙하다. 그래서 이 동생은 형의 덕을 많이 보며 자란다. 형이 용돈도 두둑하게 준다. 학비도 다 내어준다. 좋은 차도 선물해 준다. 하루는 이 동생의 친구가 동생에게 말한다. "야 넌 참 좋겠다." "왜? " "니네 형같은 형이 있어서" "그래? 난 우리형이 더 부러운데?" " 왜?" "나는 받는데 형은 주잖아" 이 대화를 생각해보자…내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보면 제목대로 5가지 사랑의 표현들이 나온다. **1)인정하는 말 2)함께하는 시간 3) 선물 4) 봉사 5)스킨십 이라고 한다.**

3)선물을 이야기 해보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많은 선물이 있지만,

전3.12-13 (NLT) "내가 알기에 살아 생전에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이 있다. 자기의 수고에 만족이 있다. 근데 이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다. 우린 지금 만족하는가? 만족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마음껏 즐기고 감사하자. 선물 이란건 참 좋은게 아닌가? 선물을 받지 않았는데 선물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람을 만날때, 밥을 먹을때, 어딜 갔을때…우리 30대 남자 outing 이 그런 느낌이었다.

오랜만에 올해 2018년에 들어 처음으로 남자들끼리 야구를 보러 Citi Field를갔다. 우린 야구의 ' 야' 만 안다. Mets 선수가 누군지, 상대팀에 있는 선수가 누군지 잘 모른다. 그런데도 갔다. 단 한가지 이유로 우린 하나가 되어서 갔다. "금요일 저녁 집에서 나오자" 우린 이것에 하나가 됐다. 참 단순하다. 참 하나되기 쉽다. 참 어리다…. 사진을 보라. 하나된 표정들이지 않는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신나는 표정들이다. 진심으로 기뻐한다. 왜 그럴까?

세상엔 이런 말이 있다. "무엇을 먹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누구와 먹는게 중요하다" 이거 뻥이다. 우린 이30대 남자 outing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다. 무엇을 WHAT을 먹는게 우린 중요했다. 하지만 우린 누구와 함께 먹는 기쁨도 함께 누렸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함인가. 역시 세상 말은 가치가 없었다. 뻥이란게 확인되고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되는 중요한 amazing moment 이였다.

역시 30대는 영육이 풍성해지는 만남의 자리다. 그곳으로 퀸장의 모든 30대 남성들을 초대한다. WELCOME!! 이날 상용이는 행복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과 좋은 구경을 하였다. 좋은 시간이였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30대를 주셔서, 좋은 30대 지체들을 주셔서, 좋은 교회 공동체 퀸장을 주셔서..

이승조 집사
Seung Cho Lee, PhD
RESEARCH SPECIALIST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NY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

제 4회 생명의 법칙

DNA의 손상, 변이, 그리고 노화

지난 달에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DNA 상의 변화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요인으로 DNA의 변이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은 DNA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의 멜라닌 등 색소가 자외선을 흡수하여 DNA 손상을 막아줍니다 (햇빛은 비타민 D합성 및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한편 DNA 손상과 암에 대한 직-간접적 상관 관계는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왔습니다. DNA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DNA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생명현상 전체로 보면 DNA 손상은 유전자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로 DNA 손상은 쌓이고 이를 복구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를 노화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DNA 손상원인과 복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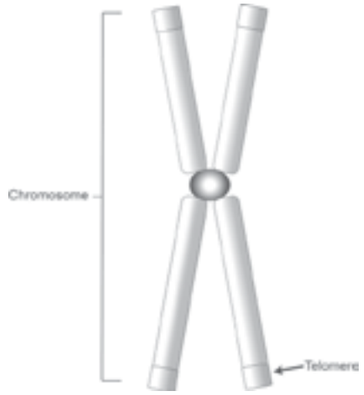
방사능, 자외선, 독성 화학 물질 (벤젠, 중금속 등) 은 DNA 손상 및 변이를 가져오는 외부 환경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 내의 요인으로는 활성 산소가 있는데 밑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DNA는 사다리가 꼬여있는 이중나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사다리가 부러져서 접착제로 붙이는 것을 상상하듯이 DNA를 복구하는 단백질 효소들이 손상 부위에 달라붙어 여러 화학작용을 통해 끊어진DNA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DNA 복구과정은 완벽하지 않아서 DNA 가 일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다른 염기로 바뀌는 DNA 변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DNA 손상이 계속 될 경우 세포는 노화가 되어 죽거나, 세포 자멸(apoptosis)로 이어져 세포의 종말을 가져옵니다. 일부의 경우 DNA 손상이 이어지면 세포는 증식을 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한적으로 분열하는 암세포로 바뀌기도 합니다.

유전자 재조합

신기한것은 이런 DNA 손상이 정자와 난자의 생성중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때 감수분열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 부모에게 물려받은 염색체의 DNA가 끊어지고 다시 연결되게 되면서 다양한 조합의 염색체가 만들어 집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파란실과 빨간실을 물려받았다면 우리는 각각의 실을 잘라내고 묶어 알록달록한 실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생식세포 외에도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 내는 면역세포에서도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다양한 항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DNA 손상 및 복구는 유전적 다양성 및 면역력 등의 측면에서 일반적이고 매우 유용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화

인간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현상 중 하나가 염색체의 끝에 위치한 텔로미어라고 하는 부위가 점점 짧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체세포가 계속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데 생식세포에서는 이 길이가 회복되어서 다음세대는 정상적인 길이의 텔로미어를 갖고 삶을 시작합니다. 이를 근거로 텔로미어 길이가 노화에 관련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최초의 복제양 돌리가 6년 만에 일찍 질병으로 죽었는데 일반적으로 복제된 동물들은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포의 노화를 가져오는 큰 요인 중의 하나가 활성 산소 (Reactive Oxygen Stress)입니다. 활성 산소는 세포가 일반적인 산소로 부터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기지만 스트레스 (자외선, 방사능,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등)으로 과다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간접적으로 활성 산소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나 암세포에서도 활성 산소가 매우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활성 산소는 결국 DNA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세포의 노화 및 사멸을 가져옵니다. 활성 산소로 인한 세포의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있고, 과일이나 채소에서 보라색을 띠는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의 경우 수명이 60여 년 정도 되지만 암에 거의 걸리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p53라는 유전자가 하나만 존재하는데 코끼리의 경우 같은 유전자를 20개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끼리의 세포는 DNA 손상이 일어날 경우 이를 빨리 치료하거나 세포 사멸을 가져오게 해서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습니다. 북극 고래는 200년 의 긴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최근 유전체 DNA서열 정보를 얻어서 노화와 DNA손상 복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과 끝, 생명의 주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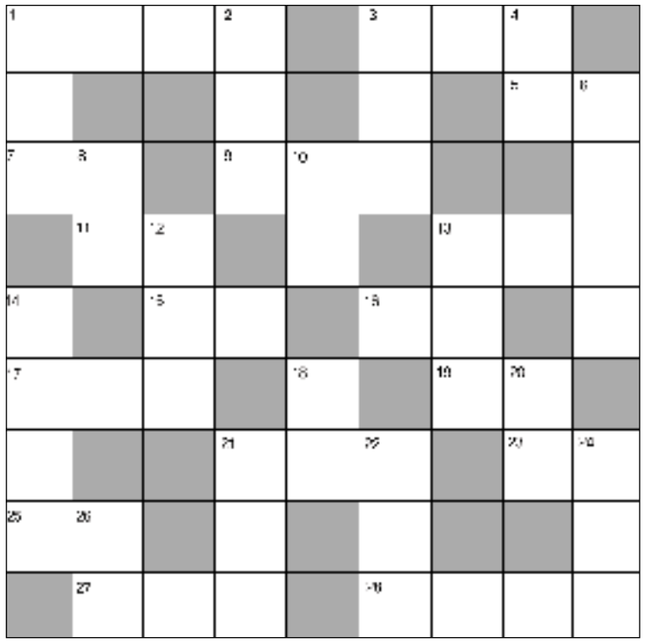
DNA 손상 및 노화와 관련된 생물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 몸안에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복잡한 법칙이 있다는 것 입니다. DNA의 손상과 이를 복구하려는 생명체의 끊임없는 싸움에는 대부분은 DNA 복구의 승리로 이어지지만 단지 가끔 일어나는 실패가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때 일이 잘 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에 상심하고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매일 되새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찬양, 기도하며 매일 깨닫는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현재 일어나는 사회적인 부분, 유전자 조작 및 생명 윤리에 대해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공부 하 GO! 퀴즈 풀 GO! 상품 받 GO!

출제 김기호 장로

아가페 411호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아가페 410호 문제정답

1. **참여방법** 낱말을 다 맞춘 후 정답지를 친교실에 비치된 응모함에 넣어 주세요.
2. **응모기간** 6월 10일 주일 – 6월 24일 주일
3. **당첨자 발표** 정답지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아가페 2018년 7월호에 발표합니다.
4. **상품안내** 퀸즈장로교회 친교실 식권 10장씩

가로 푸는 열쇠

1. 이달의 우리 교회 표어
3. 대제사장직에서 해임되었던 안나스의 사위 요셉의 성이다.(요18:13)
5.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가 된 가나인 여인 (창38:6)
7. 웃 어른께 안부의 말씀을 여쭘(출18:7)
9. 삼중주, 삼중창, 삼인조(음악)
11.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 (사41:7)
13. 이 사람의 권속 중에 교인이 있어 바울이 문안함 (롬16:11)
15.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상대편의 사람 (렘4:30)
16. 껍질을 벗기고 말린 감, 건시 (국어)
17. 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형)
19.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단 (출30:10)
21. 웃 사람과 자리를 같이 한 사람 (행25:12)
23. 사증. 이것을 받아야 입국할수 있다(명)
25. 사사시대 말기의 대 제사장 (삼상1:9)
27. 임금을 얻기위해 몸과 마음을 써서 일하는 사람 (전5:12)
28.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말 (고사성어)

세로 푸는 열쇠

1. 성막의 문 (출26:36)
2. 구약에서는 3천세겔에 해당하는 중량의 최대단위 (출25:39)
3. 마게도냐인이나 바울의 동역자 (행19:29)
4. 지구 표면의 염분섞인 물로 덮인 부분 (창1:10)
6. 길보아전쟁에서 전사한 사울의 한 아들이다 (삼상14:49)
8. 사물을 분별하는 힘 (시11:4)
10. 기브아인인데 다윗의 30용사중 잇대의 부친이다 (삼하23:29)
12. 괜스레 , 괜히 (사49:4)
13. 향의 일종 (출30:34)
14. 사도바울의 존경하는 선생이었다 (행22:3)
18. 아름다운 보배의 옥돌 (출25:7)
20. 고맙게 내리는 비 (신32:2)
21. 신앙하던 종교를 배반하는 사람 (국)
22. 정당한 행위에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자유로 행사할수 있는 국민 (골3:11)
24. 스스로 제 가치나 능력을 믿는 마음 (국)
26. 로마에 있는 교우로 바울에게 부탁하여 디모데에게 문안하였다 (딤후4:21)

정 답 자 공영순 집사 양봉옥 권사 서길웅 집사 정한국 집사 김의용 (2교구2지역)

*5월호 십자말 당첨자 추첨은 정길표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 새가족환영회 안내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새가족 이야기—더 가까이 만나요

안수혜 청년

퀸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새로운 도전과 경험

안녕하세요. 퀸즈 장로교회 새가족 안수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국제학과 3학년 재학 중이고, 지난 1월 미국에 입국해 한 학기동안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였습니다. 4월에 학기 끝나고는 뉴욕으로 와서, 현재 플러싱에 있는 이민자 권리 보호 NGO인 민권센터에서 여름 인턴쉽을 하는 중입니다.

피츠버그 한인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교회에 꾸준히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중입니다! 타지에서 교회를 통해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고, 퀸즈 장로교회에서도 여러분들과 많이 알아가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플러싱에 처음 자리를 잡고 나서도 신앙 생활을 이어가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뵙고 싶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던 도중 본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청년부 예배를 시작으로 퀸장에 등록한지 몇 주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많은 도움을 제공해주시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앞으로의 퀸장생활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미국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기댈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기댈 곳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진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인턴쉽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매일 도전적인 상황들에 부딪히면서도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배우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피츠버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앞으로도 교회 활동도 열심히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는 낯가림이 좀 있는 성격이지만,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친해져서 한국 가기 전에 좋은 추억도 만들고 뜻깊은 신앙생활도 하다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